

17일 Market Index			
코스피	2379.39	코스닥	709.71
	(-20.47)		(-7.18)
금리 (미국 9년)	3.484	환율 (원/달러)	1238.70
	(+0.030)		(+3.40)

[뉴스]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재정사업 선정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유리기판에 목숨 건다” 반도체 패키징 새역사

SKC, 美 조지아 기판공장 건설
플라스틱 대신 글라스 기판 적용
패키징 산업 ‘게임 체인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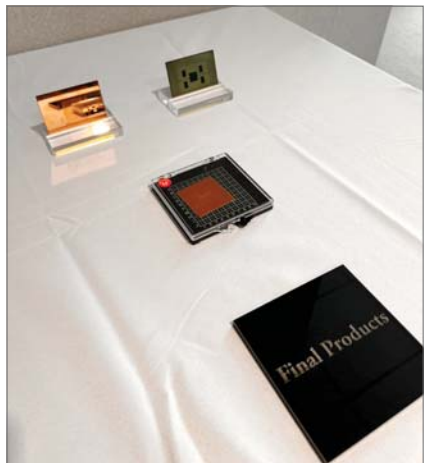
애플릭스, 조지아 공장 현장 공개
세계 첫 글라스기판 상업화 확대

“반도체 시장은 불경기다. 지금이 신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기다. SKC는 빠르게 반도체 글라스 기판을 시장에 선보였다. 생산 설비도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다. 목숨걸고 준비했다. 반도체 글라스 기판은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박원철 SKC대표(사진)의 각오다.

SKC는 지난 5~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 박람회 CES 2023에서 반도체 글라스 기판의 실물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현장에는 가로세로 각각 50cm의 넓은 면적에 일반 기판의 4분의 1에 불과한 0.8mm의 두께, 매끄러운 표면 등과 함께 기존 반도체 패키징용 기판의 한계를 극복한 글라스 기판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라스 기판 실물 / 최빛나 기자



CES2023 현장에 서 만난 박대표는 글라스 기판을 선보인 데에 고성능 컴퓨팅(HPC) 시장 확대에 따른 패키징 고도화를 배경으로 들면서 반도체 산업이 맞닥뜨린 한계를 극복하려면 패키징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5나노 칩 개발에 7000억원이 드는데 성능 개선 효과는 20%에 불과하다. 이는 투자 대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반도체 시장의 한계. 이에 이중접합 패키징으로 앞서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며 “칩 자체의 성능이 두 배가되면 가격도 똑같이 두 배로 상승한다. 이같은 이유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칩을 고성능화 시키는데 목숨 거는 것.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 따른 패키징이 고도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패키징이란 여러 개의 반도체를 하나의 기판에 실장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CPU, GPU, 메모리 등 반도체들이 여러 MLCC와 함께 기판에 하나의 부품으로 패키징 된다. 지금까지 널리 쓰고 있는 플라스틱 기판은 고르지 못한 표면 때문에 미세화를 거듭하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용으로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표면이 매끈한 실리콘을 중간 기판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외국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4면에 계속>

/조지아(미국)=최빛나 기자

vin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역대 UAE 순방 최대 성과
양국간 미래협력 강화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인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계기로 300억불(약 37조원) 투자 유치를 확정하고, 총 4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경제외교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이 모든 정상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초점을 맞춘 만큼, 이번 국빈 방문을 두고 대통령실은 “역대 UAE 순방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16일(현지시간) UAE에 마련된 프레스 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한-UAE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UAE가 대(對)한국 300억불 투자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UAE 투자와 한국의 첨단 역량 시너지로 이뤄 세계 시장에서 많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아부다비 에티하드타워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은 성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면서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 분야 외에 방위산업, 스마트 팜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번 비즈니스포럼 계기에 최소 61억불(약 7조5000억원) 규

모, 24건의 MOU를 체결했다”며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MOU가 체결돼 한-UAE 간 경제협력력을 고도화하고 다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4%대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참패 우려 대출금리 하락에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상단 하락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라야 하지만, 채권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대출의 기준금리인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도 거세지면서 대출금리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달 말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03~7.43%로 전날(5.78~7.48%)와 비교해 상단이 0.05%포인트(p) 낮아졌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준거금리와 신용에 따른 가산금리로 결정된다. 준거금리인 신규 코픽스가 전달 대비 0.05%p 내린 4.29%로 기록되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주담대 고정금리형 혼합금리(5년 고정금리+변동금리)도 연 4.34~6.28%으로 전달(4.36~7.41%)과 비교해 상단이 1.0%p가량 떨어졌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강은호

김우석

김채린

박원목

박지연

서민우

송은지

위국명

이광호

임지민

장광동

정환진

정정은

지수호

최병화

최은

서지후

오수진

윤현지

이현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노란우산

홍보모델

소개합니다

사장님의 사업홍보를 도와드립니다

홍보모델 활용에 관심있는 사장님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홍보대사 남윤화

홍보대사 정준호

KBIZ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 www.8899.or.kr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1조 등 총 12조 핵심 재정사업 추진

기재부,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5년간의 12대 핵심 재정사업 선정
고착화된 연 100조 재정수지 적자
58조2000억 수준으로 줄이기로

정부가 올해 반도체 경쟁력 확보 1조 원 등 총 12조원 가량의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재정건전성 관리에 들어가고, 연간 100조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58조 원 수준으로 절감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재정비전 2050' 계획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5년 간의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4대 재정정책방향으로 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 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전재정기조 착근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으로 정했다.

이어 12대 핵심 사업으로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과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

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역 균형 발전,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 전략 기술 집중투자, 공급망 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국격·외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만 0~1세 아이 양육 가정에 월 35만~7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사업, 병장 봉급 130만원 인상 등 민생 안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1000억원도 투입한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에 대비,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 등 총 340조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건전재정기조 아래 연간 100조여원으로 고착화됐던 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원, 절반 가량 줄여나갈 계획이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재정비전 2050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결정됐다. 현재 5년 단위 국가재정 운용계획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사회 대전환 과제를 추진하기에 한

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립된 범정부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정부는 이달 내 재정사업 성과관리팀을 구성한다.

팀은 기재부와 소관부처, 핵심 재정사업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향후 재정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성과지표·목표를 설정해 성과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성과관리 결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 성과정보는 열린 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 차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 역할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소형 SUV '인기'... 車 업계, 출시경쟁 치열

현대차 코나 폴체인지 모델 출시
쉐보레 상반기 신형 CUV 예정
기아 셀토스·니로로 시장공략
르노 XM3하이브리드 생산량 확보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 위축이 예상되면서 비교적 가격 부담은 적지만 다양한 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뛰어난 연료 효율성을 갖춘 차량에 대한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출시하는 소형 SUV 모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 만형인 현대차가 2017년 출시한 코나의 폴체인지 모델을 출시한다. 현대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코나는 전면에 수평형 램프 적용과 함께 전장, 축간거리가 늘어나면서 넉넉한 실내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코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등 다양한 파워트레

인의 모델을 갖췄다. 1세대 코나가 2017년 출시 당시 국내 사전계약 5000대를 기록하며 초기 흥행돌풍을 일으킨 만큼 2세대 모델이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올 상반기 소형 차종인 신형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 차량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차종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단종했던 소형 SUV 쉐보레 트랙스의 완전변경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UV의 공간성을 확보하면서 1.2L가솔린 터보를 탑재해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형 트랙스는 차체를 키웠지만 가격은 낮춰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지난해 출시한 신형 셀토스와 니로로 소형 SUV 시장 공략에 나선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소형 SUV 모델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말에 출시한 XM3 하이브리드의 생산량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XM3 하이브리드는 가장 전기

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차로 유럽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국내 출시 전 5000여대의 사전계약을 기록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신차 출시에 나서면서 소형 SUV 경쟁은 어느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인 기아 셀토스(4만2983대)가 여전히 건재하고, 현대차는 18일 2세대 코나를 선보일 예정이다. 르노코리아의 XM3(1만9561대), 쌍용차 티볼리(1만1343대)도 지난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여기에 한국지엠의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1만4458대) 역시 출시 3년이 지났지만 감각적인 디자인과 실내 공간 효율성 등을 앞세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공간 효율성이 뛰어난 대형 SUV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고급리 등의 영향으로 소형 SUV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올해는 국내는 물론 수입차 업체들도 소형 SUV 출시를 예고해 어느때보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국의 한국 국민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중단 이틀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 서비스센터에서 비자 신청을 문의하러 온 시민들이 안내받고 있다. /뉴스

“中 방역완화, 현지 韓기업 영향 제한적”

산업부,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조업·물류 일시적 차질 있을수도”

중국의 코로나19방역조치완화에 따른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 등 보복성 조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대한상에서 열린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전망이 나왔다. 회의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러-우 전쟁 장기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정책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공급망 영향에 대해 "일시적인 조업·물류의 차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국 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충절 연후로 인해 적어도 1월 중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지속되거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적

게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6일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을 회복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드코로나 전환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자,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당 국가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이후 한중관계 파장 등을 고려해 공무 비자와 시급한 일부 비즈니스 목적 비자는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에 대한 기준 등이 명확치 않아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상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회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공급망 상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공급망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들의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진출기업들의 조업·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부, 기업 실질적 성과 위해 촘촘히 지원”

» 1면 '尹, 세일즈외교 결실'서 계속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13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이외에도 11건의 MOU가 체결되면서 총 48건의 MOU가 윤 대통령의 2박 3일 국빈 방문 중에 이뤄졌다.

이 수석은 "이런 MOU는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차레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정부는 48건의 MOU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촘촘히 지원하고, 수출전략회의에서도 논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즈니스포럼과 병행해 개최된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양국의 100여개 기업들이 참여해 257건의 1대 1 상담을 진행했고, 1100만불(약 136억원)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관리·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을 연계해 실질적 수출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우리의 중동지역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UAE와의 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양 정상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행동으로 뒷받침한 데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방문에서 50건의 가까운 약정·계약이 체결돼 양국 간 미래 협력의 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300억불의 UAE 대(對)한국 투자 결정은 지속가능한 성장 파트너로서 한국 역량에 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보여준다"며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UAE 확고한 신뢰가 명시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이러한 가시적 성과 외에 양 정상 간 유대를 굳건히 한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美中 패권경쟁 핵심 반도체… “취약분야 지원 입법 필요”

국회미래연구원, 미래보고서 발표
“경쟁력 키울 장기적 입법 추진해야
시스템 반도체 육성 지원도 필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 국회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취약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16일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반도체’란 미래보고서를 통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정책 동향, 이에 따른 한국의 반도체 산업 영향과 과제 등을 짚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중 강경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반도체 분야는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이며 대(對)중 견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주요 우방국이 가진 기술적 우위의 유지·확대 추구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반도체 지원법 예산〉

분야	예산
CHIPS for America Fund (상무부)	500억달러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390억달러
-연구개발(R&D)	110억 달러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 (국방부)	
:국방 분야와 관련된 반도체 분야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분야의 반도체 제조 등)	20억 달러
CHIPS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 (상무부,국방부)	
:국제 정보통신기술 보안 및 반도체 공급망	5억달러
CHIPSfor America Workforce and Education Fund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2억 달러
합계	527억달러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약 280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반도체와 과학법’을 처리하고 미국 상무부는 일정 사양의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보고서는 “사실상 첨단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전면 중단시킴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의도”라며 “중국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 및 인공지능 분야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 제품과 장비 생산의 대부분이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보고서는 미국의대중 강경노선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기회와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정책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해외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기회요소로 봤다.

다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대(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손실이 우려되는 것과, 미국이 자국 내 제조 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 내 반도체 생산기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국회미래연구원

항목		세액공제율	비고
연구개발(R&D)	대기업	30~40%	투자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4% 공제
연구개발(R&D)	중견기업	30~40%	
연구개발(R&D)	중소기업	40~50%	
설비투자	대기업	8%	
설비투자	중견기업	8%	
설비투자	중소기업	1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적용.

또한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함에 따라 다른 반도체 선진국들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며,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속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 기업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사업법’을 시행하고 대기업의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범위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정부의 전략을 뒷받침 하기 위한 국회의 전향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및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사

항은 행정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정부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정치권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강점이 있는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 장비, 설계, 패키징, 테스트 분야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中 작년 경제성장률 2.8%… 46년 만에 ‘최악’

● 차이나 뉴스&리포트

제로코로나 정책에 발목
60년 만에 인구 첫 감소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3%에 그쳤다. 당초 목표했던 5.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확산으로 충격이 컸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문화대혁명 당시인 1976년 -1.6%를 기록한 이후 46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대규모 봉쇄와 격리로 대표됐던 ‘제로 코로나’가 결국은 중국 경제를 끌어내리고 말았다.

뚝 떨어진 성장률과 함께 그간 경제호황의 주역이었던 인구도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9%로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3%



중국 베이징에서 사람들이 시내 쇼핑거리를 걷고 있다.

/AP·뉴스시

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2.2%를 제외하면 반세기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경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 작년 1분기 4.8%로 회

복세를 보이던 성장률은 상하이 등 대도시가 줄줄이 봉쇄된 2분기 0.4%까지 급락했으며, 3분기(3.9%)와 4분기(3%)도 회복 강도가 약했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해 작년 연간 소비는 -0.2%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산업생산도 지난달 1.3% 증가해 전월(+2.2%)대비 둔화됐다. 고정자산투자만 지난해 연간 5.1% 성장했다. 지난달 도시 실업률은 5.5%,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2월 16.7%로 집계됐다.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이날 같이 발표된 인구 역시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다.

국가통계국은 작년 중국의 인구가 14억1180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도 불어나는 인구가 노동력과 소비로 경제성장을 이끈 ‘인구 보너스’ 시대가 끝난 셈이다.

중국의 인구는 2016년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당국이 부라부라 산아제한에서 지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출생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1년 1000명당 7.52명이던 출생률은 2022년 6.77명으로 하락했다. 관

련 통계가 집계된 194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 경제가 올해 얼마나 회복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증권일보 등에 따르면 31개 성·시 중 28개 자치구가 내놓은 2023년 성장률 목표치는 평균 6.0%다. 이를 감안하면 중앙 정부가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목표치로 지난해와 비슷한 5%대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국태군안증권 저우하우 선임연구원은 “리오프닝이 탄력을 받고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선다면 향후 소비와 투자 모두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설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을 이유로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5.4%로 올렸고, SC는 5.8%로 제시했다. 반면 블룸버그는 4.8%, 세계은행은 4.3%, UBS가 4.5% 등 4%대 보수적인 전망도 여전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추가 우대금리 조건도 방해요소

》》 1면 ‘대출금리 하락에’서 계속

조건, 만기 30년 이하 맞춰야
대출금리 4% 밑으로 내려가

올해 1월 2일 3.78%를 기록했던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6일 3.37%로 마감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고정금리형 혼합금리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사실상 국고채 5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도 거세지면서 대출금리는 더 하락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은행은 가산금리 조정 등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은행이 작년 순이자이익 등 규모에서 여력이 있기에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달

말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는 4.75~5.05%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는 우대형인 4.65~4.95%의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인 차주는 일반형인 4.75~5.05%의 금리로 제공된다. 시중은행의 금리 하단이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4~5%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 추가 우대금리 조건도 방해요

소다.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위해선 ▲저소득청년(연소득 6000만원 이하) 0.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연소득 6000만원 이하) 0.4%p ▲신혼가구(연소득 7000만원 이하) 0.2%p ▲미분양주택(연소득 8000만원 이하) 0.2%p 등이다. 조건 자체도 까다로운데,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기를 30년 이하로 잡아야 대출금리가 4% 밑으로 내려간다.

지난해 말 신청을 마감한 안심전환대출도 간간한 지원조건 때문에 흥행이 저조했다. 지난해 12월 종료된 안심전환대출은 공급규모 25조원 중 9조 4787억원(37.9%)을 공급했다. 안심전

환대출은 지원조건을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로 제한하다,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제한을 없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빠지면서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금리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일부만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하다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 향후 금리인하 시점이 올 것을 예상해 30년 동안 4~5%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않는 차주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韓 바이오·헬스가 투자 1순위 … ‘중동 국부펀드’ 관심집중

중기연구원, KOSI 중소기업 포커스
글로벌 자산규모 상위 10개 중4개
아부다비·쿠웨이트 투자청 등 규모 커

주로 플랫폼·바이오·헬스 등 투자
K-유니콘 프로젝트 기업과 유사
벤처 활력위해 초기단계 육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민방문을 계기로 중동 국부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바이오·헬스 분야가 이들 펀드로부터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병원시스템,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소비기반 플랫폼들은 작은 내수시장 등의 이유로 확장성이 크지 않아 국부펀드가 관심을 갖기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기반 플랫폼은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을 목표로 창업 초기 단계부터 집중 육성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17일 펴낸 ‘KOSI 중소기업 포커스-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성향과 국내 벤처투자 유치 가능성 진단’ 보고서에서

〈자산 규모 상위 10대 국부펀드(2022.12월 기준)〉

순위	국부펀드	국가	자산 규모		설립 연도
			자산(달러)	전체 대비(%)	
전체	174개		11조 3580억	100%	-
1	중국투자청(CIC)	중국	1조 3510억	11.9%	2007
2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관리청(NBIM)	노르웨이	1조 1450억	10.1%	1997
3	아부다비투자청(ADIA)	UAE	9930억	8.7%	1967
4	중국외환관리국(SAFEIC)	중국	9800억	8.6%	1997
5	쿠웨이트투자청(KIA)	쿠웨이트	7690억	6.8%	1953
6	싱가포르투자청(GIC)	싱가포르	6900억	6.1%	1981
7	사우디공동투자펀드(PIF)	사우디아라비아	6200억	5.5%	1971
8	홍콩통화청(HKMA EF)	홍콩	5000억	4.4%	1993
9	국가사회보장펀드(NSSF)	중국	4740억	4.2%	2000
10	카타르투자청(QIA)	카타르	4500억	4.0%	2005

/자료: https://globalswf.com/rankings/ 재가공 (2023.1월 9일 접속)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외 벤처투자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투자를 늘려왔다. 특히 앞으로도 중동 경제가 호황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이들 펀드의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이다.

이때문에 국내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중동 국부펀드를 주목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글로벌 국부펀드 174개의 총 자산

규모는 11조358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동 지역 27개 국부펀드의 자산규모는 4조1400억 달러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특히 글로벌 국부펀드 자산 규모 상위 10개 중 4개가 중동 국부펀드들이다. 아부다비투자청(ADIA), 쿠웨이트투자청(KIA), 사우디공동투자펀드(PIF), 카타르투자청(QIA)이 대표적이다.

상위 1·2위에는 중국투자청(CIC),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관리청(NBIM)이 이름을 올렸다.

연구원은 중동 국부펀드들의 벤처투자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카타르투자청(QIA), 무바달라투자회사, 아부다비국영지주회사(ADQ)를 살펴봤다.

이유진 연구원은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주로 소비기반 플랫폼과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산업에 집중해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플랫폼의 경우 내수시장이 큰 인도, 경제적 동맹을 위해 다수의 벤처 협약을 체결한 터키,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고, 바이오·헬스케어와 핀테크는 영미권과 유럽에 집중해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한국 정부가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육성하고 있는 아기·에비 유니콘기업의 산업 분포가 중동 국부펀드들의 관심 분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중동 국부펀드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의 투자를 선호하는데 해당 산업엔 한국의 아기·에비유니콘 기업이 다수 포진돼 있어 중동의 투자 성향과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특성이 가장 잘 매칭된다”면서 “한국의 병원 시스템,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의 중동 진출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 분야는 중동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동 국부펀드가 우리의 바이오·헬스케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집중 공략하되, 투자 성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보면서 다른 분야까지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라 판단이다.

아울러 중동 국부펀드들은 기업공개(IPO) 이전인 ‘프리(Pre)-IPO’ 단계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 시리즈C~E+ 단계에 있는 예비 유니콘 기업들이 투자대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정부는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Global) 소비기반의 플랫폼 유니콘을 적극 육성하고 중동 국부펀드와 조인트벤처(JV)를 조성해 중동 투자 리스크를 분담해야한다”면서 “정보 부족과 문화·종교·언어차이 등의 이유로 중동 국부펀드가 한국 투자를 꺼리고 있어 민간 협력으로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정례화하는 동시에 중동 국부펀드별 투자 성향을 고려해 한국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부펀드’란 국가가 국가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 펀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한국은행의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UAE와 원자력 확대, 넷제로 협력 강화

한전-UAE원자력공사

넷제로 가속화 전략적 협력서 서명

한국전력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ENEC)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을 확대하고 및 넷 제로(Net-Zero)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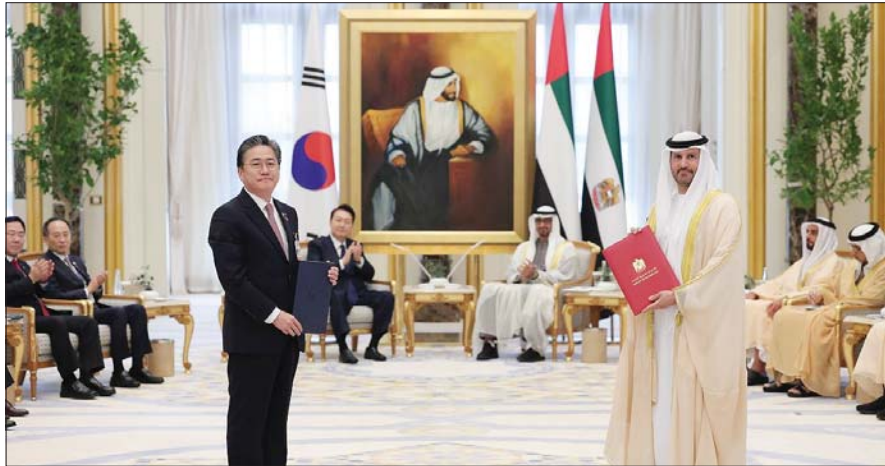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민방문에 동행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7일 수출원전 UAE 바라카 원전과 관련 “세계 원전 산업계가 주목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성공적

인 사업 완수를 위해서는 안전과 품질 관리에 최우선으로 노력해달라”며 안전·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선 15일에는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정승일 한전 사장과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은 ‘넷 제로 가속화 전략적 협력서’에 서명했다. 이후엔 실질적인 협력 이행을 위해 양사의 역량과 지혜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그동안 유지해 온 원자력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차원에서 협력서를 기반으로 한국과 UAE의 원자력 프로그램 확대 및 글로벌 원전시장 공동개발에 나선다.

또, 글로벌 전력회사인 한전의 강점을 활용해 인접국과 전력망 연계를 위한 슈퍼그리드 공동 연구개발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나아가 수소, 암모니아, 녹색인증제도 등 청정에너지사업에서도 협력해 양국 모두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수출사업인 UAE 원전사업을 수주했다. 지난 10여년간 UAE 원전을 건설하며 다져온 양사간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2018년 한-UAE 양국간 관계를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가교역할을 해왔다. 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과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은 이번 ‘넷 제로 가속화 전략적 협력’ 합의 역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UAE 바라카 원전은 지난

2009년 12월 한전이 수주한 최초의 수출원전으로 향후 4호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UAE 전력수요의 25%를 담당할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반도체 패키징 미세화·대형화 추세에도 대응 가능

》1면 ‘유리기판에 목숨 건다’서 계속

하지만 AI,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컴퓨팅용 반도체 기술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는 추세다.

SKC는 이에 초점을 맞췄다.

SKC는 애플리케이션을 필두로 반도체 글라스 기판을 시장에 처음 선보였다. 앞서 반도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박 대표는 “반도체 시장이 불경기인 데가 한계에 봉착했다. 기술들이 고성능화 됨에 따라 반도체도 고성능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다. 현지 불경기인 이유는 가격의 문제도 있지만 대체할 반도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과거 세계 파

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대만의 TSMC에 종속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한계에 부딪혔지만 반도체 시장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SKC가 애플리케이션을 필두로 움직인 것”이라며 “유리를 쓴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한 것 같다. 한국에서 처음 반도체에 유리를 얹었다. 유리는 열에 강하다. 이에 전류가 과하게 흐르지 않아 화재 같은 위험 리스크도 없다. 또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를 사용한다”며 글라스 기판의 장점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해당 기술을 구현해 내는데 2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2년을 숨어서 개발해 냈다.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 낸 것”이라며 “양산하고 내년 중순부터는 쉬핑을 시작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또 “난 CEO라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중요하다. 이는 돈을 벌게 해주는 사업이다. 글라스 기판의 퍼포먼스가 어느정도 클지 두고봐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애플리케이션 반도체 글라스 기판은 사각패널을 대면적으로 만들 수 있어 반도체 패키징 미세화는 물론, 대형화 추세에 대응이 가능하다. 중간기판이 필요 없어 두께가 얇고 전력 효율을 높여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처리와 저전력이라

는 시장의 니즈를 해결한다.

또 MLCC 등 반도체 소자를 기판 내부에 넣어 표면에는 더 큰 CPU, GPU를 장착하고 더 많은 메모리를 넣을 수 있어 같은 면적으로 더 고성능 패키징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용산구 소재의 한 대규모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에 반도체 글라스 기판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면적은 5분의 1로, 전력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리케이션 미국 조지아주 생산공장

SKC(의 반도체 글라스 기판사업자 회사 애플리케이션이 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생산공장 건설현장과 글라스 기판의 실물을 언론에 공개했다.

애플리케이션은 지난 11월 착공식을 열고 조지아주 커빙턴시의 SKC inc. 부지 내에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애플리케이션 생산공장 건설 현장을 찾았다. 드넓은 부지로 황량하다는 느낌까지 들었던 SK의 다른 공장들과는 다르게 애플리케이션 생산 공장은 광활하면서도 안락한 느낌을 자아냈다. 그도 그럴것이 조지아 주는 일년 내내 초가를 날씨를 유지하면서 허리케인이나 집중폭우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반도체 생산 공장을 구축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다. 해당 공장을 통해 SKC는 세계 최초의 글라스 기판 상업화를 확대시킬 전망이다.

현재 골조 공사 단계인 애플리케이션 생산공장은연산 1만2000㎡ 규모로 2억 4000만 달러를 투자, 2024년 완공이 목표다. SKC와 애플리케이션은 3억6000만 달러의 2단계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연산 7만2000㎡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전과자 거른다”… 국민의힘 선관위, 전대 후보 적격성 판단

음주운전·성범죄 등 후보 배제
별도 전과기록 확인 후 컷오프
내달 10일 결정, 3월 양자토론회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8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기로 했다. 후보자 자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 후보자 자격 요건에 맞춰 ‘전과 기록’ 유무를 두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는 게 당 선관위 방침이다. 당 선관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당 선관위 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은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후보나 공직 후보자 공천 시 전과에 대한 기준이 당헌·당규에 있다. 그 기준에서 전과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음주운전·성범죄 전력 등이 있는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별도 컷오프 기준



유홍수(오른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석기 부위원장.

/뉴시스

까지 제시한 셈이다. 중앙선관위 공직 후보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형

집행유예 선고 후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징역형 종료 혹은 면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선관위원들은 이 같은 기준을 통해

추가로 컷오프 하는 방침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선관위가 전과를 직접 조회할 수 없는 만큼, 별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의 제재 방안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앞서 정한 ▲후보자 등록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1월 31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2월 2~3일) 등에 이어 ▲컷오프(2월 10일) ▲합동 연설회 및 방송 토론회(2월 13일부터) 일정도 확정했다.

합동 연설회는 7회, 당 대표 방송 토론회는 4회 열기로 했다. 이번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부터는 제주에서 시작, 수도권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청년 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방송 토론회는 1회 진행하는데, 당 유튜브 채널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일정에 대해 장 의원은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2월 10일까지

컷오프를 하고 2월 13일부터 대략적으로 합동 연설회와 방송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는 결선투표 일정도 정리했다. 전당대회 당일 득표율이 50% 넘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 시 ▲양자토론회(3월 9일) ▲모바일(3월 10~11일) 및 ARS(3월 11일) 투표 순으로 일정을 정했다. 결선투표 최종 당선자가 3월 12일 결정되는 일정이다.

한편 장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동일 득표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는 연장자를 (선출)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청년 당원을 적극적으로 우대하지는 취지로 연장자로 하는 게 맞는지 논의를 더 하려 한다. 오히려 연소자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컷오프 인원과 방식 등 구체적인 논의도 26일 예정된 5차 회의에서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이재명 또 소환 통보한 검찰… 민주당 ‘단일대오’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위례’ 의혹 설 이후 소환
박홍근 “물타기용 정치 수사 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설 이후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한 가운데, 민주당은 17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쏟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을 두고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파동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라부라 물타기용 정치 수사 쇼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에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모녀가 주시 내부정보를 받

은 녹취록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와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수사의 불공정함을 주장했다.

당 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원내대표단,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며 야당 탄압 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다”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수 십명의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하고, 중계를 방불케하는 피의사실공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이 다반사인 검찰독재의 민낯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송환에 맞춰 이 대표

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선을 그었다. 안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 알지 못한다고 이미 밝혔고, 대신 수입료를 받았다는 변호사역시 의혹은 소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허위 자작이란 것을 증명하는 진술서까지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난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으로 죄를 묻고 철퇴를 내려치던 궁에 가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병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왔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권력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전임 정부와 이 대표를 죽이려하는 총체적 권한 남용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많은 자괴감이 들뿐 아니라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성남지청에 소환한지 일주일도 안되는 6일 만에 오는 27일과 30일을 찍어서 하나는 반부패 수사3부, 하나는 반부패 수사1부에 나 오라는 것은 (검찰이) 먼저 언론에 흘렸다”며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많은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봤다. 이런 일은 없었다. 제1야당의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수사를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 살인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분노해야 한다. 함께 싸우자.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이 이런 시대를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금씩만 시간을 할애주셔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렇수록 이재명 중심으로 뿔뿔 뭉쳐서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의원들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UAE의 적은 이란” 尹 발언에… 野 “외교참사” 맹폭

민주당 “말실수 한두번 아냐” 비판
대통령실 “한-이란 양자관계 무관
우리 장병 격려차원 발언” 진화나서

취임 첫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외교참사를 일으키며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정부 측은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는 도중 나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

E의 안보는 바로 우리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이란과 UAE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최근 간접 발언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이런 면에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전개를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IRNA 통신은 이란 외무부가 한국 정부의 최근 외교적 태도와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하게 발언한 것을 심

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슬람 수니파 국가인 UAE와 시아파 중주국인 이란은 외교적·종교적으로 비우호적 관계인 것은 맞다.

지난 2016년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성직자인 니므르 알 니므르를 처형하자 분노한 이란 대중이 이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공관을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했고, 같은 수니파인 UAE도 주이란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2017년 UAE는 이란과 우호적인 카타르와의 국교를 단절하면서 ‘국교 복원’ 조건으로 이란과의 단교 등 13개 사항을 요구했고,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정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지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UAE와 이란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우호 교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UAE와 이란은 국교를 다시 회복했고, 자국으로 소환됐던 주이란 대사가 이란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당시 UAE 외교부는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UAE의 노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의전 하나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순방 외교에서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다”며 “말실수, 외교 참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실수를 막지 못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란에 뭐라고 해명할

것인가. 대통령의 말실수라고 변명할 것인가. 대통령과 참모들이 왜 이런 문제를 만드는지 답답하다”며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고 반성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억지 변명으로 유아무야 넘어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기준이 됐다. 이러니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의 한-이란 양자관계와는 무관하다”며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의 말이었다. UAE가 당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도 대변인실을 통해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한 바, 불필요하게 확대해석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익·박태홍 기자 pathfinder@

펫보험 등 디지털 신사업 본격 추진… 글로벌 공략도 박차

2023 보험사 경영전략

⑥ 삼성화재

‘작!한생활시리즈’ 50만명 가입
어르신 위한 친화형 서비스 도입
블루오션 펫보험 ‘O모O모’ 출시
현지법인 통해 해외 진출 가속화

금융업계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삼성화재 또한 지난해에 이어 디지털사업에 본격 뛰어들 계획이다.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는 “2022년이 디지털화 원년이였다면 2023년에는 디지털화를 가속화 하는 실행의 단계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디지털본부를 신설하는 등 인력 투입 효과를 가시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경영전략으로는 ‘실질 성장을 통한 확고한 차별화’다. 보험별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고 영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장기보험은 입구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자동차보험은 수익성 제고에 나선다. 아울러 해외 7개국에 진출한 만큼 세계 시장 공략 또한 지속할 예정이다.

◆ 디지털 사업 속도 ↑ … 신사업과 시너지

삼성화재는 올해도 디지털 전환을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

/삼성화재

중점 과제로 잡았다. 지난해 4월 삼성화재 다이렉트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한 ‘작!한생활시리즈’의 가입자가 이달 50만명을 돌파하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자사 앱에 ‘시니어 친화형 모바일 서비스’를 담았다. 고객층 확보의 일환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유입을 위해 개발했다.

삼성화재의 주력 디지털 플랫폼은 ▲애니핏 ▲다이렉트 작 ▲모니모 등이다. 개인 건강 상태 확인 및 개선, 맞춤형 보험상품 소개, 전용 상품 개발 등 폭넓게 구성했다.

‘애니핏’은 건강관리 서비스다. 애니핏 앱을 이용하면 갤럭시 시리즈에 탑



삼성화재 애니핏, 모니모, 다이렉트 작 이미지.

/삼성화재

재된 ‘삼성헬스’ 앱과 연동된다. 소비자가 설정한 운동 목표를 완료하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에는 ‘마음 건강관리’ 기능을 추가하며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다이렉트 작’은 보험 상품 설명 서비스다. 개인별 맞춤보장 분석과 함께 보험료를 산출한다.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리고 있다. 최근에는 ‘마일리지 운전자보험’과 ‘미니생활보험’ 등을 새롭게 출시했다.

모니모는 삼성금융계열사가 내놓은 ‘슈퍼앱’으로 통한다. 삼성화재뿐 아니라 생명·증권·카드 등 삼성 계열 금융사가 참여해 시너지를 일으킨다. 회사

내 곳이 모니모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서 소비자층을 늘리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모니모를 통해 ‘미니 자전거보험’을 내놓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신사업 진출에도 나선다. 지난달 ‘O모O모(오모오모)’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펫보험 시장에 뛰어 들었다.

펫보험 시장은 보험업계에서 10여년간 블루오션으로 통했다. 1500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1%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점하면 거대 시장의 독주가 가능한 셈이다.

◆ 해외시장 공략 가속화… 상품다각화

삼성화재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영국,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7개 나라에 현지법인을 세우고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7곳의 해외법인에서 393억6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2021년 상반기 대비 141%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삼성화재는 지난해 해외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홍 대표는 과거 전략영업본부장, 설계사(FC) 영업 1본부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영업 업무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올해도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 새로운 소식을 알린 곳은 중국 시장이다. 2005년 삼성화재 중국 법인으로 출범했지만 지난해 중국의 인터넷 미디어 기업인 ‘텐센트’와 손을 맞잡고 합작법인으로 탈바꿈했다.

텐센트는 중국시장 내 메신저 앱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위챗’을 개발한 IT회사다. 삼성화재는 텐센트와의 협작을 통해 위챗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설 수 있다.

홍 대표는 지난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를 통해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작년 11월 은행 예적금 58조 ↑… 역대 최대

가파른 금리상승에 자금 이동
시중 통화량 27조3000억 증가

지난해 11월 시중에 풀린 돈이 27조 3000억원 늘었다. 가파른 금리상승에 가계와 기업의 자금이 은행 예·적금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정기 예·적금 규모는 58조원 이상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2년 11월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시중통화량 평균잔액은 광의통화(M2) 기준 389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7조3000억원 늘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다.

상품별로 보면 11월 정기예·적금은 58조4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통계 작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설명절자금을 방출하는 모습.

/한국은행 사진공동취재단

성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19조1000억원 감소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에 자금이 쏠리던 시기를 지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며 자금이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가 14조1000억원 늘고, 기업의 M

2 역시 정기에·적금을 중심으로 3조 8000억원 증가했다. 기타 M2는 지방교부금 유입의 영향으로 7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시중 통화량 증가세는 둔화되고, 은행으로 시중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해 연 3.5%로 끌어올렸다.

단기자금 지표인 M1(협의통화)은 지난 11월 기준 126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7% (34조4000억원) 줄었다. 현금통화와 결제성 예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M1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기 쉬운 자금을 의미한다. M1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6.8%로 세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나유리 기자 yul115@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세금조회 서비스

앱 통해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등 순차 서비스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들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다.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는 넬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셈(SSEM)’을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체 간편인증서 인증으로 전자매출 및 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류한다. 이후 계산된 세금을 앱 화면에 보여주면 바로 신고까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세금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이며,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의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조회·신고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조회는 오는 27일까지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개인사업자 बैं킹 서비스와 함께 세무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세무 서비스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본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어린이금융체험교실’ 새 단장

입체감 있는 디지털 금융교육 진행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동 소재 신한은행 금융교육센터에서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을 새롭게 개편해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은 신한은

행이 2012년부터 진행한 초·중·고·대학생 대상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새롭게 개편한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통장개설, 적금가입, 환전 등 금융지식 습득과 조별 미션을 통해 카드 이용과 소비 등 재미요소를 더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신한 솔(SOL) 모바일 बैं킹 체험이 가능한 ‘디지털 존’ ▲외국 국가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보고 환율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외환 존’ ▲금융의 흐름 및 금융회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미디어 월’을 활용해 디지털 세대에 맞는 입체감 있는 디지털 금융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나유리 기자

농협銀, 설 명절 휴게소 이동식 ATM 운영

NH농협은행이 명절을 앞두고 휴게소 이동식 자동화기기(ATM)를 운영한다.

NH농협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운영에 나서는 이동식 ATM은 차량형 이동점포로 무선통신

망을 이용해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권 인출, 계좌이체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명절을 비롯해 전국의 지역행사와 축제, 재난현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GOOD
LUCK



2+0+2+3년

새해를 하나로 합하면 7이 되는
계묘년의 행운 공식처럼
올 한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항공사, 비자제한 등 중국發 리스크에도 여객 회복 빨라져

지난해 여권발급 건수 4배 늘어
설 연휴 앞두고 50% 가량 증가
진에어 국제선 탑승객 85% 회복
겨울방학 여행 수요 등 지속 늘듯

중국 정부의 비자 발급 중단 등 보복 조치에도 국내 항공업계의 여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여객 수요에 따른 신규 노선 개발·취항은 물론이고 설날 기간 증편으로 영업이익 증대를 노리고 있다. 여권 발급 급증 속도만 봐도 여객 심리는 고조돼 있는 상태다. 2021년 69만여 건에서 지난해 283만여 건으로 4배 넘게 늘어 향후에도 여객 수요 회복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통상 한 주에 10만 건도 안 됐던 신청 건수가 50% 가량 증가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국제선 탑승객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12월의 8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부산은 75%, 티웨이항공은 72%, 제주항공은 70% 등으로 여객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부활이 점차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직원이 발급된 여권을 분주히 정리하고 있다. 각국의 방역·출입국 규제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권 발급량도 증가하고 있다. /뉴스시스

진에어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집계 나오지 않았지만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높을 것은 확실하다”며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인 국제선 여객 수요가 매달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국제유가도 높고, 환율도 높아 전체적인 탑승실적이 회복됐다 해도 영업이익이 여객 증가분만큼 늘었는지는 지켜봐야 할 실정이다.

LCC 관계자는 “중국 여객을 제외하면 지금의 회복세는 항공업계 정상화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국내 LCC 중 4분기 흑자 전환이 예고된 곳은 진에어와 제주항공이다.

국내 LCC들의 재도약은 일본과 동남아 노선 이용객들의 증가가 결정적이다. 제주항공의 경우 일본 노선 탑승객은 지난해 9월 1만3796명에 불과했지만 10월 8만9094명, 11월 20만2591명, 12월 26만5130명으로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노선 탑승객도 지난해 10월 7만8707명, 11월 11만3551명, 12월 16만8157명 등으로 증가했다.

세계 2위의 항공기 리스(lease) 업체 아볼론의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과 북미 주도로 승객이 70% 회복됐다면 올해 성장은 아시아가 견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항공업계는 향후 설날 연휴 여행 특수와 겨울방학 여행 수요 등으로 겨울 여행 여객이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에어는 최근 27개월 만에 인천~타이베이 노선 운항을 다음 달 1일 재개하기로 했다. 총 189석인 B737 항공기를 투입해 주 7회 일정으로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국내선에 임시편 38편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제주항공은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인천~삿포르~오사카 노선을 비롯한 국제선 54편을 증편 운항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12일 국제선 정기 노선인 청주~다낭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이는 약 3년 만에 재개된 청주공항 정기편 국제선이기도 하다.

에어부산도 올해 첫 신규 취항 노선으로 부산~클락 하늘길을 열었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왕복

2회 운항 중인 부산~오사카 노선을 3회로 늘리고, 부산~타이베이 노선도 왕복 1회에서 2회로 운항한다.

대한항공은 20~24일 설 연휴에 김포~제주행 노선을 편도 기준 10편 늘려 운항하고 1900석의 좌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포~광주 4편, 김포~제주 2편, 김포~여수 2편, 여수~제주 2편 등 4개 노선 10편의 임시편을 추가로 운항할 예정이다.

대형항공사(FSC)들은 여객 증가는 환영하지만 항공화물 수익은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화물기로 개조했던 7대의 여객기를 다시 여객기로 원상 복구했다. 글로벌 항공 화물 운임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TAC 인텍스에 따르면 발틱항공화물은 임지수(BAI)는 이달 현재 2818으로 2021년말 사상 최고치였던 5524에 대비해 절반가량 떨어졌다.

다만,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비교해 떨어졌을 뿐, 지금도 결코 낮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화질·속도 개선… 2억화소 이미지센서 선봬

삼성전자 ‘아이소셀 HP2’ 출시
전하저장용량 최대 33% 높여
자동초점 ‘슈퍼QPD’ 기능 적용

삼성전자가 2억화소 이미지센서를 업그레이드했다.

삼성전자는 ‘아이소셀(ISOCELL) HP2(사진)’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이소셀 HP2는 종전과 같이 픽셀 2억개를 담았지만, 전하저장용량을 최대 33%까지 높여 화질을 개선했다. 업계 최초로 포토다이오드에서 회로에 수직 구조 게이트를 2개 배치하는 ‘듀얼 버티컬 트랜스퍼 게이트’로 전자 신호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픽셀이 더 많은 빛을 활용하면서 색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테트라 스퀘어드 픽셀’ 기술도 적용했다. 조도 조건에 따라 4개나 16개까지



인접한 픽셀을 묶어 빛을 인식하는 수광 면적을 극대화해 저조도 환경에서 1.2μm(5000만 화소) 또는 2.4μm(1250만 화소) 크기로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HDR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ISO 프로’에 ‘듀얼 슬로프 게인(Dual Slope Gain)’ 기술도 새로 적용했다. 픽셀에 들어온 빛 정보를 서로 다른 신호 2개로 증폭하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하나로

합성하는 방법으로 색 표현 범위를 넓혀주는 기술이다. 모바일 AP 지원이 없이 이미지센서만으로도 5000만화소 HDR 촬영을 구현하면서 이미지 처리 속도도 개선했다.

2억개 화소가 모두 자동 초점 기능을 수행하는 ‘슈퍼 QPD’ 기능도 있다. 약 1룩스 밝기의 달빛 아래에서도 상하 위상차로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춘다.

그 밖에 딥러닝 기반 ‘리모자이크 알고리즘’을 적용해 초고화소 환경에서의 촬영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켰다. 종전보다 촬영 속도를 2배 가량 높였고, 초당 30 프레임의 8K 해상도, 120 프레임의 4K 해상도를 지원한다.

특히 사진 촬영과 동일한 화각에서 초고해상도인 8K 영상 촬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김재웅 기자 juk@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급물살 EU, 기업결합 승인 여부 내달 결정

美·日·英 등도 상반기 결정 예상

EU(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내달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EU 반독점 규제 당국은 2월 17일 양사의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남은 국가는 미국과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4곳이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추가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고 이르면 이달 26일, 늦어도 3월

23일까지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CMA는 대한항공의 영국 항공사 인천~런던 노선 취항 제안을 수용했기에 기업결합이 승인 가능성이 크다.

EU와 일본은 심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신고국과 임의신고국 중 한 국가라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한편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10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끝마쳤다.

/양성운 기자 ysw@

조현상 효성 부회장, ‘부산엑스포’ 힘 보태

3년 만에 다보스포럼 참석
YGL 인맥 활용 유치전 합류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사진)이 다보스포럼에 참가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 힘을 보탰다.

효성그룹은 조 부회장이 16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제53회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부회장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것은 2020년 이후 3년만이다. 포럼 기간 글로벌 리더들과 만나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부회장은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YGL)’로 선정된 바



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는 ‘한국의 밤’ 행사에서 YGL 인맥을 적극 활용해 부산EXPO 유치에 조력할 계획이다.

글로벌기업 CEO들과 만남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등 탄소 감축에 대한 논의들도 이뤄지는 만큼 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인 효성그룹의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조 부회장은 2006년부터 꾸준히 다보스포럼에 참석해오며 다보스포럼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

전세계 24개 도시에 ‘갤럭시S23’ 체험공간 연다

삼성전자, 19개국서 3주간 운영
카메라 등 다양한 혁신기능 체험

삼성전자가 다음달 1일(현지시간) 갤럭시 언팩이 개최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더불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두바이 등 전세계 19개국 24개 도시에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Galaxy Experience Space)’를 오픈한다.

약 3주간 운영되는 체험 공간은 다음달 1일 개최되는 갤럭시 언팩 이후 누구나 방문 가능하며, 새롭게 공개되는 제품과 다양한 혁신 기술을 체험할 수



삼성전자가 다음달 1일(현지시간)가 전세계 19개국 24개 도시에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Galaxy Experience Space)’를 오픈한다. /삼성전자

있다.

갤럭시 체험 공간은 ▲카메라 등 혁

신 기능 경험 ▲제품 간 상호 연결을 통한 갤럭시 생태계 체험 ▲삼성전자의 지속가능한 일상(Everyday Sustainability) 비전 공유 등 다양한 컨셉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카메라 관련해서 이색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영화 세트장을 테마로 꾸며진 공간에서 영화 감독처럼 촬영하며 새로운 갤럭시 제품의 카메라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허정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인재중심·자율실행·미래주도’ 바탕,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

현대모비스, CEO 타운홀 미팅

조성환 사장, 임직원들과 소통
모빌리티 혁신 새 슬로건 공개
채용 다변화로 인재 육성 지원
UAM·로보틱스 등 신사업 강화

조성환 현대모비스사장이 2023년 새해를 맞아 ‘최고경영자(CEO) 타운홀 미팅’을 열고 임직원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조 사장은 또 지난해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올 한 해를 관통할 경영 방침과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회사의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개, 미래 모빌리티 분야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겠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현대모비스는 17일 오전 용인마북기술연구소 스튜디오M에서 CEO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신규 직책자와 마북 연구소 신입사원부터 주참을 통해 선정된 인원까지 20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100여명의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이 17일 요인 마북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임직원들에게 주요 성과와 경영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신청자가 실시간 소통에 참여했고 사내 방송으로 전사에 생중계됐다.

조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주요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경영 상황, 주요 경영 방침 및 사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임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연결된 탁월함’을 담은 새 슬로건 ‘The one for all mobility’를 공개했다. 자동차 부품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 빠르게

혁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체질 개선에 발맞춰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미지를 안팎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뉴모비스(NEW MOBIS)’ 비전을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전문 기업 도약을 선언했다. 회사명 ‘MOBIS’의 의

미도 ‘MObility Beyond Integrated Solution’으로 재정의했다.

경영방침으로는 ‘인재 중심, 자율적 실행, 미래 주도’ 등 3대 키워드가 제시됐다. 조 사장은 “채용 전략 다변화와 합리적 시스템 운영으로 인재 육성 및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거점 오피스 등 하이브리드 근무환경 구축, 소통과 협업 강화 등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 운용의 주요 방향으로 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 경쟁력 확보’를 앞세웠다. 전동화와 차세대 모듈 등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는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략반도체 사업 역량 등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핵심부품 수주를 지난해 대비 10% 늘려 글로벌 제조사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UAM·로보틱스 등 신사업 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CEO와 구성원이 직접 소통하는 첫 오프라인 미팅으로 기획됐다. 임직원들에게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경영진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열린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업 도약을 위해선 조직의 수평적 전개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현대모비스는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이같은 자리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네이버클라우드, 동남아 통신분야 DX 선도

싱가포르 통신사 스타허브와 협력 클라우드 기반 5G 네트워크 서비스

네이버클라우드가 싱가포르 통신사 ‘스타허브’와 함께 동남아시아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통신업계 디지털 전환(DX)에 나선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스타허브와 전략적 파트너십과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스타허브는 싱가포르 통신전문 기업으로 20년 이상 동남아 지역의 일반·기업 고객에게 △통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통신 기술을 결합해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고, 동남아 지역 내 통신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클라우드 기술력을 다방면의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등 동남아 지역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양사는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스타허브의 ‘클라우드 인피니티 프로그램(Cloud Infinity Program)’의 일환으로 초저지연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인피니티 프로그램’은 스타허브가 개념화한 저지연 멀티클라우드 아키텍처로 확장성이 높고 액세스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스타허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전문 기업과 플랫폼 및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5G, 10Gbps와 같은 초저지연 멀티 액세스 기술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에는 네이버 신사옥 ‘1784’ 내 프라이빗 5G 구축 경험과 기술력을 싱가포르 퍼블릭 5G에 접목한다. 클라우드 기반 통신 기술은 통신 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필수 기반 중 하나로, 통신사들은 클라우드를 활용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가 가능하다.

네이버클라우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엣지 단 및 고객 데이터센터로 확장

해 고객들이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5G Core 솔루션과 다양한 워크로드(Workloads)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클라우드에는 스타허브와 MSP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스타허브가 클라우드 MSP 사업자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스타허브 파트너사에게 기술 전문성 및 리소스를 지원한다. 네이버클라우드에는 스타허브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 GTM (Go-to-Market)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통신 산업에 특화된 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타허브 니킴 이펜 CEO는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력으로 고객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타허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네이버클라우드 박원기 APAC 사업 개발 대표는 “동남아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 및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SK C&C, ‘2023 씨앗’ 교육생 모집

SK(주) C&C는 17일 기업연합 채용연계형 청년 장애인 ICT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인 ‘2023 씨앗(SIAT)’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씨앗’은 SK(주) C&C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판교디지털훈련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청년장애인 ICT 전문가 육성·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SK(주) C&C 씨앗 6기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SK(주) C&C

CJ올리브네트웍스, 근로자 안전확보 박차

고장 예측 ‘예지보전시스템’ 구축 AI솔루션 통해 사고 발생률 감소

CJ올리브네트웍스가 ESG경영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나섰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글로벌 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오산 뷰티파크에 예지보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예지보전은 기계설비의 고장을 예측해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는 보전활동으로, 설비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작업자가 직접 보전예방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 ESG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제조공장의 로봇, 제조 설비를 대상으로 상태 감시 및 예지보전을 위

해 데이터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AI솔루션을 적용했다.

이 솔루션에는 글로벌 베어링 제조사의 주파수와 축 회전수, 진동수 등의 빅데이터가 축적돼 있어 설비에 설치된 전류, 전압, 진동센서의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아도 설비의 결함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설비의 센서 위치에 진단결과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결함 유형에 따른 분석과 조치내용을 제공해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송원철 CJ올리브네트웍스 DT사업2 담당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가 없어도 실시간 모니터링만으로 설비의 상태 진단이 가능해 초기 구축 비용이 높지 않다”며 “설비 고장률이 현저히 감소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자의 시간을 부가가치가 더 높은 곳에 사용할 수 있어 생산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SKT ‘티딜’, 720개 품목 설맞이 특가대전

1++ 등급 한우·홍삼 등 다채

SK텔레콤이 AI(인공지능) 큐레이션 커머스 ‘티딜(T deal)’에서 한우와 홍삼, 과일 등 300여 개 브랜드 720개 품목이 참여하는 ‘설맞이 특가대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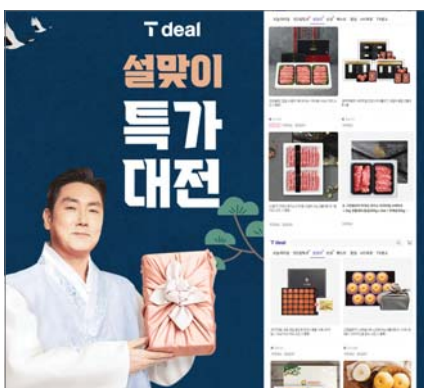
‘티딜’은 빅데이터 분석 및 AI 큐레이션에 기반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SKT 고객들만을

위한 문자 쇼핑 서비스로, 온라인 최저가 및 무료배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소상공인 업체의 매출 비중이 96%에 달하고, 중소상공인들은 문자 발송 및 전용 온라인 페이지 등록 등 마케팅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주요한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는 평가다.

SKT는 ‘설맞이 특가대전’ 이벤트에



서 1++ 등급 한우와 홍삼 및 과일·화장품 등이 이번 설에도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윤정 기자

“정부·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 ‘유동성 위기 극복’ 최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주식·채권 장기투자 세제 혜택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 정부 건의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제1 공약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 언론과 금투업계 모두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및 그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다”며 “또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당국의 노력으로 최근 회사채·기업어음(CP) 금리 등 단기자금 시장은 안정화하고 있다”며 “협회도 정부 당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CP 91일물 금리는 지난해 말 5.540%에서 지난 16일 기준 4.860%로, 같은 기간 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5.662%에서 4.661%로 안정화됐다. 이

어 지난해 말 증권업계의 합의로 출범한 ‘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형 증권사를 위주로 한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서는 “증권사 ABCP 문제는 1조8000억원 규모의 AB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중에서 26%를 매입해 현재로서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 A2 증권사 자금경색 문제는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 당국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만, 실물경제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말 기준 주식투자자 수는 1384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2021년 말 기준 2827만명)의 과반에 달한다. 서 회장

은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정부 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고 기업 가치 관련이 아니라 단기적인 차익만 보는 투자 행태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 종합과세가 아니라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도 하고 세율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투자,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그래도 테슬라”… 서학개미 기술주 ‘편식’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등 기술주 위주 사들이
채권 ETF도 인기 투자처 부상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기술주를 위주로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월9~15일)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전자차 제조업체 테슬라로 집계됐다. 지난주에 이어 순매수 1위를 차지했지만 순매수 규모가 절반 수준에 그친 7283만달러에 그쳤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락분을 일부 만회했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주당 399달러에 달했던 테슬라는 올 첫 거래일인 지난 3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104.64달러까지 내렸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소폭 반등하면서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3일 122.4달러에 장을 마쳤다.

최근 테슬라가 판매 부진 만회를 위한 가격인하에도 수익성 악화가 적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테슬라 주가 긍정론자인 캐시워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줄어들었으며, 테슬라는 배터리 비용 감소로 가격을 인하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순매수 상위권에 개별 종목으로는 대만 반도체업체 TSMC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애플이 이름을 올렸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TSMC의 ADR을 지난주에만 2100만달러 가량을 사모으면서 순매수 상위 5위에 올랐다. 여기에 애플의 주식도 2005만달러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6위에 이름이 올랐다.

다만 기술주 매집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관련 업종의 하락세를 점치는 투자자가 우세했다. 순매수 2위에 오른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SOXS·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EAR 3X SHS ETF)로 ICE 반도체 지수의 수익률을 역으로 3배를 추종하는 종목

〈지난주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현황〉

순위	종목명	티커	순매수결제
1	TESLA INC	TSLA	7283만달러
2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EAR 3X ETF	SXS	5370만달러
3	JP MORGAN ULTRA SHORT INCOME ETF	JPST	2911만달러
4	ISHARES MSCI ACWI ETF	ACWI	2873만달러
5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ADR	TSM	2100만달러
6	APPLE INC	AAPL	2005만달러
7	VANECK JP MORGAN EM LOCAL CURRENCY BOND ETF	EMLC	1974만달러
8	ISHARES IBOX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HYG	1551만달러
9	ISHARES JP MORGAN USD EMERGING MARKETS BOND ETF	EMB	1243만달러
10	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S ETF	TMF	989만달러

기간: 1월9~15일.

/한국예탁결제원

에 5370만달러가 유입됐다. TSMC의 경우만 하더라도 올 들어서만 17% 이상 오른 86.8달러에 거래되면서 반등세가 나타났던 이들 종목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개별 종목 외에도 채권 ETF 다수가 순매수 상위권에 오르면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눈에 띈다.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인 ‘JPST’가 3

위(2911만달러), 이머징 현지 통화 채권 ETF인 ‘EMLC’가 7위(1974만달러), 미국내 BBB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 ‘HYG’가 8위(1551만달러), 달러화 표시 신흥국 채권 ETF인 ‘EMB’가 9위(1243만달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금리 3배를 추종하는 TMF 10위(989만달러) 등 5개 종목이 순위권에 들었다.

/이영석 기자 ysl@

예탁원, 부산서 지역인재 육성·숲 조성 등 ESG 실천

Advertorial Corner

취약계층 일자리·지역주민 지원

한국예탁결제원이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지역인재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 지원, 학교명상숲 조성 등 다양한 지역공헌활동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7일 예탁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만 60세 이상 시니어가 지역 박물관에서 시설 안내와 전시물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물관 도슨트 지원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했다.

또 지난 2021~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공 기정화식물로 구성된 수직정원을 보급하고 유지·관리하는 녹색드림지킴

이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예탁원은 부산 소재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소와 협력해 부산지역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지원에도 나섰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생활방역전문가 지원사업으로 만 35~65세 중년 여성이 소독·방역·발열 검사 등 생활방역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해에는 중년 여성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 강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디지털코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예탁원은 부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프로그램 ‘KSD 금융·증권 오픈캠퍼스’를 운영해 청년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회사소개, 우리회사 주요 서비스(전자증권제도 등) 교육, 2022년 신입직원 채용안내 및 선배와

의 대화 프로그램 등을 부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예탁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는 부산시와 ‘부산혁신도시 지역 상생을 위한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IT 및 상경 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년간 19조 800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탁원은 부산 소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및 판로확대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예탁원 등 부산 소재 9개 기관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한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51억 7000만원 중 예탁원은 총 6억 2000만 원을 출연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신한자산운용 美 저평가 가치주 투자 펀드 출시

‘신한 뉴버거버먼 미국 가치주 펀드’

신한자산운용이 미국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는 ‘신한 뉴버거버먼 미국 가치주 펀드’를 삼성증권 등을 통해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 뉴버거버먼 미국가치주 펀드는 운용자산 500조원 규모의 85년 역사를 보유한 미국계 종합자산운용사의 ‘뉴버거버먼 미국가치주 펀드(Neuberger Berman US Large Cap Value Fund·USD)’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평균 31년 경력을 보유한 미국가치주 투자에 특화된 피투자펀드 운용팀이 전담한다.

해당 펀드는 물가 상승기에 강한 가치주에 선별 투자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기준 6.5%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보이며, 이러한 높은 물가상승률은 향후 2023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성장주보다 탄탄한 재무 상태와 견조한 기업실적을 갖춘 가치주가 성장

주들 보다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S&P500 가치주(Value)/성장주(Growth) Index 지수를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을 예고한 2020년 하반기 이후 가치주가 성장주를 추월해 현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박정호 신한자산운용 펀드솔루션팀장은 “가치주를 주목하기에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조성됐으며,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밸류에이션 매력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가치주를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판단된다”며 “뉴버거버먼 미국가치주 펀드는 2006년 설립 이후 꾸준히 미국 대형가치주 유형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3년 이상 구간에서는 상위 2% 이내를 기록하면서 월등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 뉴버거버먼 미국가치주 펀드는 환헤지형으로 출시되며, 연간총보수는 수수료미정구운라인형(C-e) 기준으로 총보수 0.850%다.

/박미경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오늘은 장학생 내일은 전문가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하고
특성화교육으로 앞서가자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모/집/기/간 2023.1.20(금) ~ 2023.2.15(수)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홈/페/이/지 www.wdu.ac.kr 입/학/문/의 1588-2854

2020 교육부 평가인증대학 및
재정지원 가능대학 선정

입학생 장학금 수혜율 100%
* 2022년 1학기 기준

재학생 58% 전액장학생
* 2022년 1학기 기준

사이버대학 최다 지역캠퍼스 보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익산)

“설 명절 트래픽 증가 걱정 끝”… 이통사, 품질관리 ‘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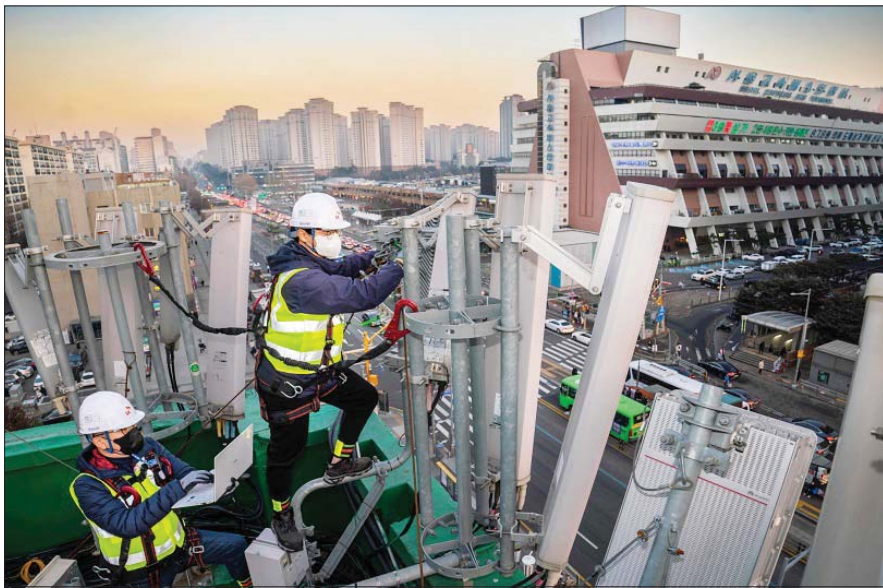
SKT, 통신서비스 24시간 모니터링
KT, 네트워크 집중 관리체계 운영
LGU+, ‘연휴 특별 소통 대책’ 수립

이동통신사들이 설 연휴 동안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휴 기간 동안 품질관리에 돌입한다.

SK텔레콤은 설 연휴를 앞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일평균 1300여 명의 자회사·관계사·협력사 전문인력을 배치해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SKT는 전국적으로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변화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을 증설했다. 국지적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이동통신 품질과 고객들이 귀성·귀경길에 많이 활용하는 티맵(TMAP) 서비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SKT는 고속도로에서 연휴 전날인 20일 오후 귀성길, 설 당일 귀경길 가장



SKT 등 이동통신사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사전점검을 마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SKT

많은 트래픽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 품질점검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마쳤다. 연휴 기간 중에는 설 당일 전국 데이터 사용량이 최고점에 달해 평시 대비 2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SKT는 이번 설 연휴 간 개인·소규모 인원 단위의 이동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구간, 성

묘지 및 공원묘지, 리조트와 캠핑장 등 통신 인프라 점검도 마쳤다.

성진수 SKT 인프라서비스CT 담당은 “고객들이 불편 없이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운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설 연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5일까지 네트워크 집중 관리 체제 운영에 나선다

고 17일 밝혔다.

KT는 일 평균 12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가 근무하는 등 집중 감시와 긴급 복구 임시 TF도 운영한다.

KT는 명절 기간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KTX역, 공항, 쇼펜센터, 변화가 등 전국 1000여개 지역의 통신 인프라 품질 점검과 용량 증설 등 서비스 품질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에는 해외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로밍 트래픽을 집중 감시하는 동시에 국외 통신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도 사전에 정비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동통신 통화량 및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연휴 특별 소통 대책’을 수립했다.

설 연휴 기간인 20일부터 24일까지 비상운영체제에 돌입, 고객들이 데이터와 음성 등 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이번 명절 연휴에는 사회적 거리두리 해제로 인해 귀성·귀경길에 나서는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국 어디에서나 5G·LTE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거점에 5G 및 LTE 최적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전국 고속도로와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LTE 기지국을 사전 점검해 품질을 측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데이터 트래픽 및 통화량 증가가 예상되는 명절의 특성을 감안해 중요 거점지역에는 현장요원을 배치,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춘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설 연휴 기간 U+tv VOD 및 OTT 동영상 시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캐시서버 용량 증설 등을 통해 트래픽 증가에도 대비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LG, 글로벌 ESG 혁신가 지원… 대상에 ‘닷’

‘라이프스굿 어워드’ 시상식 개최
시각장애인 디스플레이 ‘닷패드’

LG전자가 글로벌 ESG 혁신가들에 감사를 전했다.

LG전자는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글로벌 ESG 혁신가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라이프스굿 어워드(Life’s Good Award)’를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어워드는 글로벌 스타트업이나 개인들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강화 방안과 환경 보호 등 솔루션을 지원받아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선정하는 자리다. ESG 비전인 사람과 지구를 위한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는 활동 일환으로 개최됐다. 글로벌 ESG 분야 석학들과 LG전자 임직원으로 구성된 ‘라이프스굿 위원회’가 참여한 ▲영향력(Impact) ▲혁신성(Innovation) ▲실현가능성(Feasibility)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LG전자는 61개국 334개 응모팀 중 1·2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닷(Dot)’, ‘솔루션(SOLUTUM)’, ‘데이원랩(Day1Lab)’, ‘노나 테크놀로지(NON



LG전자가 ‘라이프스굿 어워드’를 통해 국내외 ESG 혁신 스타트업을 시상했다.

A Technologies)’ 등 4개 기업에 시상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스플레이 ‘닷패드’를 제안한 ‘닷’이 대상을 받았다. 2400개의 점자핀이 패드 표면을 구성하는 촉각 디스플레이로 PC나 모바일 화면 속 그림, 지도 등 디지털 시각 자료를 손끝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각 그래픽으로 바뀐다.

‘닷’은 “장애인들에게 이미지를 촉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

감을 밝혔다.

이어서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솔루션을 제안한 이스라엘 솔루션이 금상, 자연 분해가 가능한 탄수화물 복합체 기반 플라스틱 대체 소재를 제안한 데이원랩이 은상을 받았다. 미국 노나 테크놀로지는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휴대용 담수화 장치를 제안해 동상 영예를 안았다.

LG전자는 본선에 참가한 4개 팀에 총 105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고, 제안한 솔루션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운 기자 juk@

코웨이 ‘설 맞이 대잔치’… 세뱃돈 등 풍성

22일까지 명절 선물 경품

코웨이가 다가오는 계묘년 설날을 맞아 다양한 혜택을 담은 ‘설 맞이 대잔치’ 이벤트를 진행한다.

17일 코웨이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코웨이 자사물인 코웨이닷컴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뱃돈 증정과 함께 다양한 명절 선물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세뱃돈 받기 이벤트’는 코웨이 제품 구매 고객들 중 선착순 200명에게 네이퍼포인트 1만원을 증정한다. 또한 새해 소망 이벤트로 가장 이루고 싶은 새해 소망을 선택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홍삼 선물세트(10명), 트러플오일 선물세트(20명), 전통 약과 선물세트(30명) 등을 선물로 준다.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위해 할인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2월까지 코웨이 비박스 시그니처 안마의자를 포함한 안마의자 3종(MC-SC01, MC-S01, MC-P02)을 대상으로 신규 렌탈 고객에게 약정 기간 동안 최대 6개월의 렌탈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시불 구매 시 최대 100만원도 할인한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KCC, 유니버설 디자인 ‘컬러뱅크’ 선포

1249종의 컬러 스펙트럼

KCC가 문화, 산업, 건축환경 등 사회 전반에서 선호하는 컬러 트렌드를 반영한 ‘KCC 컬러뱅크(Color Bank) Vol.1.6’를 선보인다.

17일 KCC에 따르면 컬러뱅크 Vol.1.6에서 선보인 총 1249종의 풍부한 컬러 스펙트럼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일반 소비자와 대리점이 원하는 컬러를 찾기 쉽게 구성했다. 아울러 안전배색을 강조하는 컬러 유니버설디자인(CUD)을 적용해 안전까지 고려하는 디자인 색채를 강조했다.

1995년 이후 올해로 여섯번째 제작한 컬러뱅크 Vol.1.6은 색상과 색조에 기초한 아홉가지의 체계화된 그룹으로 분류해 효율적인 색상 정보를 지원한다. 사용자 편의향상을 위해 참조용 먼셀값과 색인코드, 베이스 표기 등 정보를 추



KCC의 컬러뱅크(Color Bank) Vol.6.

가했고 아홉가지의 컬러군에 대한 트렌드 정보와 컬러 배색 추천 등 다양한 정보를 QR 코드 스캔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한국조선해양, 초대형 LNG운반선 3척 수주

새해 첫 성과… 9714억 계약

HD현대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새해 첫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사와 20만 입방미터(㎥)급 초대형 LNG운반선 3척을 9714억원에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길이 299.8m, 너비 48.9m 규모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 계약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LNG운반선을 수주하게 됐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부터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운반선을 수주해오며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운반선 총 173척 가운데 가장 많은 44척을 수주한 바 있다.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클락슨포캐스트 클럽(Clarkson Forecast Club)’에서 올해 LNG운반선 발주가 83척에 달해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오프로더 원조’ 디펜더, 007영화·영 왕실 인연 등 한 눈에

김재웅의 봄봄봄

랜드로버 디펜더 뮤지엄

출시 75주년 기념 한정판 선보여
초기 모델 연상되는 그린색 눈길
75년간 전세계 누빈 활약상 소개

랜드로버는 럭셔리 SUV를 대표하는 브랜드다. 그 중에서도 디펜더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모터쇼에서 시리즈1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된 이후 오프로더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디펜더가 잠시 단종된 사이에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앞다퉈 모방하는 것은 물론, 디펜더를 계승한다는 브랜드까지 만들어질 정도다. 영국 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오히려 디펜더가 그만큼 보편적인 디자인이 됐음을 반증하는 사례였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나온 디펜더, 랜드로버는 75주년을 기념해 리미티드에디션을 출시했다. 그리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75대 한정판으로 국내에 출시하며 디펜더의 복귀를 다시 한 번 기념



랜드로버코리아 로빈 콜건 대표가 디펜더 75주년 기념 리미티드에디션(왼쪽)과 클래식 디펜더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했다. 17일부터 성수 디뮤지엄에서 디펜더 뮤지엄을 열고 리미티드에디션과 함께 지난 역사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디펜더 리미티드에디션은 최상위 트림 110 D300 HSE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디펜더 역사를 담은 외관은 물론 강력한 성능과 편의 기능도 자랑한다. LG

전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며 편의 기능을 크게 제고하며 완벽을 기한 모델로도 잘 알려져있다. 초기 모델을 연상케 하는 그래스미어 그린 색상에 헤드라이트, 그리고 곳곳에 75주년 한정판을 의미하는 요소들을 적절히 배합했다.

랜드로버는 무엇보다 뮤지엄을 통해

디펜더 ‘헤리티지’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영국 왕실과 007 영화, 적십자와 인연을 맺었던 당시 모습을 담으며 영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오프로더를 대표하는 모델로 활약한 이야기를 담았다. 디펜더를 모방한 SUV가 수없이 많아졌지만, ‘오리지널’은 디펜더임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다.

한정판 모델과 함께 전시된 클래식 디펜더는 이목을 사로잡았다. 7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어지는 디자인 철학, 그러면서도 최첨단 기능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을 비교해보면 디펜더의 특별함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디펜더가 깎아내리는 듯한 구조물 위에서 안정적으로 서있는 모습은 여전히 감탄을 내게 한다. 협지에서는 차체를 최대 145mm까지 차체를 높일 수 있으며, 도강 높이 역시 900mm에 달한다.

75년간 디펜더 역사는 실차 대신 다 이캐스트로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색을 입었지만 한결같은 여러 세대 디펜더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은 얼마나 오랫동안 변치않는 사랑을 받아왔는지 다시 한 번 짐작케 한다.

랜드로버 관계자는 “디펜더를 닮은 오프로더가 수도 없이 많이 출시됐지만 디펜더와 같이 75년 역사를 가진 모델은 없다”며 “디펜더 75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한화시스템, 기후변화 대응 ‘TCFD’ 지지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공개 전담 협의체〉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사업 전 분야 기후변화 대응 동참

한화시스템이 지난 10일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공개 전담 협의체(TCFD) 지지를 선언했다고 17일 밝혔다.

TCFD는 2015년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설립된 협의체다.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조직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지지 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를 투명

하게 공개하고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세부 활동과 경영 성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상장기업 ESG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TCFD 지지 선언으로 방산·ICT 부문과 UAM·저궤도 위성통신 등의 신사업 부문 등 전 사업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0월 주요 협력업체 20개 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ESG 경영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9월에는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진단 및 평가할 수 있고, 공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는 ESG 경영관리시스템 ‘ESG ON’을 공식 론칭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공영협소핑 협력사에 판매대금 230억 선지급

설 앞두고 상생경영 강화

공영협소핑이 설을 맞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23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선지급했다.

공영협소핑은 예년보다 빠른 설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기존 지급일인 20일에서 사흘 앞당겨 17일에 판매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영협소핑의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들은 12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최대 8일 먼저 판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공영협소핑과 거래하고 있는 1000여개 협력사로 1일부터 10일까지 거래 대금이다.

이번 판매대금 조기 지급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명절 전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주기위해서다.

공영협소핑은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확산, 상생펀드 지원 등 공적 기능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많은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진, 친환경 경영 강화… 전기차 충전사업 등 확대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도 추진

한진이 친환경 경영을 더욱 강화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태양광 발전소를 통한 전기차 충전사업 및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통해서다.

17일 한진에 따르면 친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내 물류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주도에서 전기차 택배 차량 시범운행을 진행했고, 이후 택배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택배 터미널 내 전기차 충전사업을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한국에너지공단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에 선정돼 서울 구로 터미널, 강서 터미널, 광주 터미널, 제주 터미널 총 4개 택배 사업장에 전기차 충전기 6기 설치를 끝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한진이 전기차 충전기 및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친환경 물류활동 강화한다. 한진의 택배 전기차.

한진은 택배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4개 택배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엔 전국의 택배·물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더욱 늘려 택배 차량 외에 전기 화물차 대상으로도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기차 관련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사업과 함께 태양광 발

전설비 인프라도 구축해 전력을 스스로 공급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에너지공단의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에 선정돼 강원도 원주 택배 터미널에 태양광 발전소를 2월에 준공하는 등 태양광 인프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 공유 편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 운영

벤처펀드 운용사와 출자자가 펀드 운용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선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8일부터 벤처펀드 운용사(GP)와 출자자(LP)가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www.vf.s.or.kr)’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펀드 운용사가 출자자에게 펀드 운용실적, 자금 집행 현황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지난해 4월에 착수해 같은해 12월에 구축이 마무리됐다.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벤

처펀드 운용사와 출자자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펀드 운용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출자자는 자신이 출자한 벤처펀드의 운용 실적을 통합해 확인이 가능하다. 운용사는 운용사 내부 전산망(ERP)과 연계해 펀드의 주요 정보 등록, 투자 변동사항 관리와 투자진행별 주요 보고를 자동 처리할 수 있다.

펀드의 재산을 위탁받은 기관과 펀드 운용사 간 재산 운용지시, 운용 결과보고를 전산 처리하고 출자자는 이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웹표준을 준수함에 따라 사용자는 브라우저(크롬, 엣지 등)와 디바이스(PC, 태블릿 등)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 의무화 등 농업인 권익증진 나선다

농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분쟁조정 ‘민원도우미 제도’ 도입

경쟁촉진·거래 투명성 강화 일환
‘블라인드경매’ 확대·의무화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퇴출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



설을 1주일 앞둔 15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선물용 또는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쟁조정위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옴부즈만이 출하농업인의 불만·분쟁 상황에 대해 1차 대응과 권고 역할을 하고, 옴부즈만 권고 사항에 불복할 경우, 관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책임소제 등을 2차 판단·조정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조작을 시범 도입하고, 농산물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해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정보가림(블라인드)경매’를 확대하고 의무

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경락가격과 가격진폭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와 수급 조절,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올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한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거래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도 손본다. 평가 결과 공공성이 미흡한 법인은 퇴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의 재지정 절차를 법령에 규정해 법인

의 공공성 강화 노력을 재지정 요건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농산물 도매시장 혁신을 위해 연내 온라인거래소도 출범한다.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확산,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집·분산 기능이 악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공공급식이나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내 대량 수요처와 연계해 지역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의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구조를 개선해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용부, 공짜야근·임금체불 등 감독 강화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등
5대 불법과 부조리행위 발표

올해부터 ‘공짜 야근’으로 악명높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정부의 기획감독이 강화된다. 조선업 임금체불 등 노사 불법행위 관련 근로감독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5대 불법과 부조리행위로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으로 정했다. 포괄임금 오남용은 올해 처음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이 대상이다. 올 하반기에도 기획감독을 이어간다.

포괄임금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김포의 한 물류센터를 찾아 올해 근로감독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

을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 포괄임금을 두드러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한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야근이 잦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해당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근로감독 과정에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에 대한 임금체불도 기획감독 대상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나 직장내 괴롭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이 많은 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한다.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감독 및 후속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소진공,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집중지원

내달 24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7일 소진공에 따르면 오는 2월24일까지 모집하는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22개사 안팎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0개 부처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 등 총 5개 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한다.

신청유형은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도약지원’과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두 가지

가 있다.

‘도약지원’ 유형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18개사 내외로 선정한다. ‘스케일업’ 유형은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사 정도를 뽑는다.

선정 기업은 1단계 기업진단, 2단계 전문교육, 3단계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전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회적취약계층의 복지 확충,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유플러스·KT에 과징금 부과 ‘합당’

양사 과징금소송 등 청구 기각
법원, 공정위에 ‘승소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한 LG유플러스, KT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사들을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상고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 및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양사의 청구를 기각하

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 등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물 주문배송 알림 등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경쟁사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LG유플러스와 KT 같은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망서비스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모두 판매하는 L

G유플러스와 KT가 부당하게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와 KT는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들 양사에 부당한 이윤압착 행위를 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을 두고 LG유플러스와 KT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문 분석 후 대응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하고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며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코트라 ‘글로벌 ESG+사업’ 참가기업 모집

내달 13일까지 참가접수

KOTRA는 우리 기업의 해외 ESG 활동을 지원해 국제적인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이를 마중물로 해외 진출도 확장하는 ‘2023년 글로벌 ESG+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참가 접수는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하며 1차 사업 수행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다. 신청대상은 해외 ESG 활동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 창업 벤처기업, 유턴기업,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물론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협회, 공공기관, 공기업이며, 국내에 사업장을 소재한 기업이어야 한다.

참가 기업은 ▲자사 제품, 장비, 기자재를 기부하거나 ▲기술, 경영,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제공 ▲유류장비를 이전 또는 기증할 경우, 제공한 기부가치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원 또는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참가기업은 ESG활동을 통해 현지 수혜처 또는 정부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자사 제품의 홍보를 통해 현지 시장진출의 발판을 구축할 수도 있다.

현지에서 ESG 행사 추진 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행사장 및 차량 임차, 통역원 고용, 언론홍보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KOTRA는 올해부터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별로 수혜처와 기부희망제품 리스트를 사전에 공지해 맞춤형 ESG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석 기자 ysl@

Enjoy Your Life



유럽제품 을 안방에서 즐기다

COCOSBAY

NAVER

코코스베이



광주 소매·유통 경기전망 여전히 먹구름… 2분기 연속 끄끄

고금리 등 대내외 여건 영향
구조조정 등으로 비용 개선
운영비 등 비용절감 절실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 1분기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 전망이 먹구름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75'로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체감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명절특수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겨울방학과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내수침체, 물가·금리 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을 뜻한다.

경영항목별로는 매출·수익 항목(75)은 물가상승에 따른 수익감소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전망치가 하락했다.

고용항목(96)은 근무시간 축소 및 인원 감축, 퇴직자 미충원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용항목(128)은 구조조정 및 관리비용 축소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체별로는 대형마트(150)는 명절

및 신학기 특수와 온라인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 기대로 체감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백화점(55)은 동절기 고가제품 판매 확대 및 명절특수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망치가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점(64)은 무인 점포 확산과 편의점 간 경쟁 심화 등으로 경기가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켓(45)은 물가상승에 따른 수익감소, 편의점과 대형마트와의 경쟁 심화로 매출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더욱 강화해야 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건비·운영비 등 비용절감(48.9%)', '온라인 사업강화(31.9)', '프로모션 강화(25.5%)', '점포리뉴얼(12.8%)', '상품개발(8.5%)', '배송 경쟁력 강화

(8.5%)', '오프라인 출점(4.3%)', '유통 신기술 도입(2.1%)', '없다(12.8%)'순으로 응답했다.

경영활동 시 가장 큰 현안 및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31.9%가 '비용 상승(인건비, 금융, 물류비 등)'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소비위축(29.8%)', '소비자 물가상승(17.0%)', '상품 매입 원가 상승(14.9%)', '시장경쟁 심화(6.4%)'라고 응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금리와 물가 상승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가 2분기 연속 침체를 겪고 있다"라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체들의 대응 전략 마련과 민간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광주=김종식 기자

skjong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주낙영 경주시장(가운데)이 '제2급장교 조성현장'을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주낙영 경주시장

대형 공사장 찾아 안전 챙기기

주낙영 경주시장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6일 대형공사 현장을 돌며 시설 점검은 물론, 취약 지구 안전 챙기기에 나섰다.

먼저 주 시장은 흥무로 도로개설 현장을 찾아 동대병원 인근의 중앙선 횡단구간의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임시도로 개설을 지시했다. 또 주 시장은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동대유치원~동대교' 865m 신규 개설 구간 착공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구간은 2021년 8월 개통한 '금장사거리~동대유치원' 560m 구간의 연장사업이다.

총 사업비 14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되면서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착공 예정이며 개통은 내년 말이다. 이어 주 시장은 제2급장교 조성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관계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영주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 영주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복지, 환경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 바뀐 새로운 정보들이 수록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부서에 배부했다.

한편 책자에서는 중앙부처의 8개 분야 65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영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부산시, 철도역 등 6곳

‘기후대응 도시숲’ 만든다

광장·도로 등 포장지역 주변에 조성
미세먼지 생활권으로 유입 차단

부산시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 등 6곳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된 '미세먼지 차단숲'의 사업내용을 확대한 사업이다.

도심 내 대규모 숲을 조성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고 광장 및 도로 등 포장지역 주변에 숲을 조성해 도시열섬을 완화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천항, 사상공단, 녹산공단 등 19곳에 23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해운대구 동해남부선 주요철도역, 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 등 6곳에 150억원을 투자하여 15ha의 기후대응 도시



오시리아관광단지 미세먼지차단숲

숲을 조성한다.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할 곳은 ▲해운대구 동해남부선 주요 철도역(5곳) ▲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 ▲강서구 화전일반산업단지 ▲기장군 좌천역 폐선부지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일원 ▲기장군 일광이천 생태공원 등이다.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ha의 도시숲(10년생)은 연간 평균 6.9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숲이 미세먼지(PM10) 농도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평균 40.9%까지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가 1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대구시의 협약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

“건강권 뺏는 대형마트 규제완화 규탄”

마트 노조, 규탄 기자회견
“장시간 노동에 내모는 협박”

광주·전남 지역 마트 노동자들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협약을 두고 “노동자·소상공인 생존권 강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이하 마트 노조)는 1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상인 모두를

죽이는 ‘살생 협약’을 파기하라”며 밝혔다.

마트 노조는 “지나해 말 대구시와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위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일부 상인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윤 정부는 나아가 심야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제한 해제는 마트 노동자들을 휴일·야간·장시간 노동에 내모는 협박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광주=김종식 기자

영천시, 청년농업인에 정착지원금 지급

조건에 따라 3년간 월 90~110만원

영천시는 농업·농촌의 근간이 되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오는 1월 27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와 후계농업경영인을 모집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농업을 갓 시작한 청년에게 조건에 따라 3년간 월 90~110만원을 지원해 소득이 불안정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1983.1.1.~2005.12.31.)인 독립

경영(경영주)3년이하 또는 예비 농업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만18세 이상 만50세 이하(1972.1.1. 이후 출생)인 독립경영(경영주) 10년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축사신축, 농기계 구입을 위해 세대 당 최대 5억 한도로 1.5% 금리에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천(경북)=이상호 기자

고창군, ‘공동주택’ 올 가을 입주시작

LH임대주택 398호

민선 8기 고창군이 공동주택 공급을 확대해 인구유출을 막고, 주택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2~3년새 지역내 신규 아파트 신축이 없었던 만큼,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이·가전업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르면 올 가을 고창지역에 LH임대주택 398호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고창읍 읍계

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128호를 비롯해, 고수면 150호, 무장면 120호가 입주한다.

또 여러 민간기업에서도 공동주택 건설·분양계획을 세우고 있다.

3월에는 고창읍현대아파트 앞쪽의 광신주택(260호), 터미널 회전교차로 주변의 읍내리 주상복합(56호)도 공사를 시작해 바로 선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동해 도시형 생활주택은 6월 준공 후 바로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 첫 여성 119구조대장 탄생 강진소방서 김미라 소방경

강진소방서는 전남 최초로 여성구조대장으로 김미라 소방경을 임명했다. 김미라 119구조대장은 1996년 10월 전남 2기 구급대원으로 소방에 입문했으며 23년간 화재, 구조, 구급현장 활동과 함께 3년 동안 예방행정업무로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전남 최초 첫 여성 119구조대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대장은 구급대원으로 활동중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려 하트세이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소방청이 주최한 안전분야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행정안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바로·임박·새벽 등 배송전쟁… 유통가, 설 판매 막판 스퍼트

롯데·현대백화점, 당일배송 서비스
컬리, 라방중 구입시 익일오전 배송
SSG닷컴, 설 전날까지 새벽배송

설 연휴가 3일 여 남은 가운데, 유통 업계가 마지막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에 열 올리고 있다. 명절이 바짝 다가온 만큼 당일 배송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명절이 평년에 비해 이른 해에는 선물세트 판매가 연휴에 가까울수록 많아지는 탓이다.

17일 설 선물세트 판매에 나선 주요 유통기업들이 오는 설 연휴 기간까지도 선물세트 당일 배송 서비스를 진행한다 고 밝혔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설 연휴 직전까지 명절 선물세트 당일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명절 선물 세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의 20%가 연휴 직전인 마지막 4일간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처럼 이른 명절인 때에는 명절 분위기가 체감 되는 후반부에 수요의 약 25%



유통업계는 만남이 자유로운 설 연휴 직접 선물을 주고 받는 이들이 어느 때 보다는 늘 것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선물세트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설 연휴 KTX 플랫폼에서 귀향길에 오른 시민들이 양손 가득 짐을 든 모습. /뉴스시

가 마지막 4일간 발생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0일까지 수도권 전 점포에서 명절 전용 '바로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명절 선물 세트를 7만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 점포 기준 반경 5km 이내 주소지로 당일 3시간 안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선물을 배송한다. 2020년 추석때 본점에 처음 도입한 이후, 2021년 설부터 수도권 전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운우옥롯데백화점푸드(Food)부문장은 "올해는 이른 설을 맞아 연휴 직전에 선물을 구매하는 수요가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휴 직전까지도 품질 관리와 안전 배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연휴 첫날인 21일까지 당일 바로 배송하는 '설 명절 선물세트 임박 배송 서비스'를 진행한다. 전국 현대백화점 각 점포별 반경 5km 내에서

배송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주문하면 주문 당일 저녁까지 바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배송료는 5만원 이하 구매시 5000원, 이상은 무료다. 압구정본점을 비롯한 신촌점·미아점·목동점·디큐브시티·부산점·울산동구점 등 전국 6개 점포는 설 전날인 21일까지, 21일 휴점하는 무역센터점을 비롯한 천호점·목동점·중동점·킨텍스점·관교점·더현대 서울·더현대 대구·울산점·충청점 등 전국 10개 점포는 설 연휴 전날인 20일까지 '명절 임박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e커머스 기업들도 연휴 직전까지 선물세트 판매전을 진행하며 새벽 내지는 당일 배송을 보장한다.

컬리는 20일까지 매일 오후 12시30분과 8시 2회 설맞이 릴레이 라방을 진행하고 라방 중 구매시 다음날 오전 배송한다. 랑콤, 에스티로더, 설화수, 키엘 등 명품 화장품부터 이탈리아 발사믹 브랜드 레오나르디,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강남면옥, 라메르,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CJ 모음전 등 명절 선물로 인기있는 브랜드를 모았다.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는 한우, 양념갈비, 굴비, 사과

등을 준비했다.

SSG닷컴 또한 설 전날까지 쓱배송(주간배송)과 새벽배송을 운영한다. 쓱배송 상품은 21일 오후 2시 이전 주문시 당일 저녁까지, 새벽배송 상품은 20일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21일 새벽 6시 이전까지 배송한다. 선물세트 구입시 혜택도 마련했다. 이마트몰 세트는 행사 카드 결제 시 최대 40% 할인, 구매 금액별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상품권 혜택은 즉시 할인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신세계몰 선물 세트는 구매 시 최대 7%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G마켓은 20일까지 이마트와 스마일프레시는 상품을 익일 배송하는 명절 임박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G마켓 당일배송관에 대해서는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마트와 스마일프레시는 20일까지 상품 구매시 전국 이마트 점포를 통해 다음날 물건을 배송하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GS프레시몰 등 G마켓 당일배송관 입점 물은 서비스 지역에 한해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홈플러스 “고급 싱글몰트 위스키 맛보세요”

그랜지스톤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버번·럼·세리 캐스크 숙성 3종 출시

홈플러스가 17일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에서 생산되는 고급 싱글몰트 위스키 '그랜지스톤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3종'을 단독 출시한다.

'그랜지스톤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는 버번, 럼, 세리 캐스크에 각각 숙성된 3종으로 출시된다.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역에서 미국산 오크통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숙성해 높은 퀄리티를 보장하고, 블렌딩을 하지 않은 싱글몰트로 위스키 본연의 강렬한 맛까지 쟁했다.

'그랜지스톤 버번 캐스크'는 은은한 오크향과 함께 잘 익은 과일의 산미를 느낄 수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맛을 자랑한다. '그랜지스톤 럼 캐스크'는 섬세한 오크 풍미와 녹색 잎 향의 조화가 일품이며, 바닐라의 달콤함과



홈플러스는 17일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싱글몰트 위스키 '그랜지스톤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3종'을 출시한다. /홈플러스

캐러멜 처리된 과일의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그랜지스톤 세리 캐스크'는 달콤한 참나무, 건포도, 살구, 신선한 참나무가 겹겹이 쌓여 풍부한 맛과 부드러움이 입안에 오래 남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은 지난 12일 문정한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클럽 주주클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위스키 전 품목 5% 할인 쿠폰을 통해 최대 1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뷰티 쓱세일’ 1분에 상품 20개 팔렸다

SSG닷컴, 뷰티매출 전년비 225% ↑

SSG닷컴이 지난 일주일 카테고리 특화 프로모션 '쓱세일' 진행한 결과 큰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SSG닷컴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뷰티 쓱세일' 행사를 진행했다. 쓱세일은 이달부터 시작한 카테고리 특화 프로모션으로, 매달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신세계그룹 연중 최대 행사 '쓱데이' 수준의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 첫 행사 카테고리는 '뷰티'였다.

이번 쓱세일에 참여한 셀러(판매사) 수는 300여 곳, 혜택 적용 상품이 1만여 개 이상에 달해 단일 품목 행사 기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SSG닷컴에 따르면 행사 시작 첫 날과 이튿날은 신세계그룹 연중 최대 행사인 쓱데이에서 달성한 뷰티 매출을 넘어섰으며, 행사 전체 기간 뷰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 누적 판매량 역시 20만여개를 기록해 1분당 20여개의 상품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오전 10시마다 진행한 한정수량

특가 '타임딜'도 반응이 높았다. 첫째날 진행한 '바비브라운 아이크림 1+1'은 15분만에, 다섯째날 판매한 '키엘 울트라 웨이셜 크림 125ml 세트'도 30분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SSG라이브에서 진행한 총 7개 뷰티 라이브방송도 설화수, 랑콤 등이 한 시간 방송 동안 역대 매출을 올리는 등 지금까지 쓱닷컴에서 진행한 각 브랜드 방송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SSG닷컴은 호실적의 이유로 독보적인 기획 상품을 발굴하고 용량 추가, 사은품, 가격 할인 등 고객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높이는 데 주력한 점을 꼽았다.

/김서현 기자

롯데칠성, 숙취해소 음료 ‘깨수강’ 광고 공개

롯데칠성음료가 숙취해소음료 '깨수강'의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숙취개는 히어로 깨수강'이라는 문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재미있고 유쾌하게 숙취해소 효과를 전달하고자 했다.

깨수강 캐릭터 '깨르방'이 숙취해소 히어로로 등장하는 콘셉트로, 가상의 섬 취해도에서 벌어지는 숙취 악당 '왈라'와의 사투를 담았다. 평화로운 섬 취해도에 악당이 나타나 숙취를 전염시키지만 깨르방이 등장해 깨수강의 강력한 감귤 탄산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이다.



롯데칠성음료 깨수강 광고 스틸컷 /롯데칠성음료

깨수강 광고는 술고래 편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왈라 편이 새롭게 공개됐으며 TV, 롯데칠성음료 유튜브 공식 채널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술고래 편은 공개 3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약 600만 회를 기록하며 소비자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김서현 기자

전자랜드, 설맞이·주방가전 기획전 진행

온·오프라인서 각각 31일까지

전자랜드가 31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설맞이 기획전'을, 온라인몰에서는 '주방가전 기획전'을 진행한다.

전자랜드는 행사 기간 기획전을 통해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설 명절에 수요가 늘어나는 생활 소형 가전을 할인 판매한다. 요 제조사의 전기밥솥, 전기레인저, 커피머신, 믹서기, 에어프라이어, 비데가 행사 품목이다. 행사 모델을 구매할 경우 1만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명절 효도 가전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안마의자도 할인 판매한다. 기획전 행사 모델을 구매할 경우 5만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1959년 이전 출생한 만 65세 이상 고객이 구매할 경우 지정된 병원에서 사



전자랜드가 설 맞이 기획전에서 안마의자를 할인 판매한다. 전자랜드 파워센터 용산본점에서 고객들이 안마의자를 체험하고 있다. /전자랜드

용할 수 있는 특수건강검진권까지 함께 제공한다.

온라인 채널인 전자랜드쇼핑몰도 오는 31일까지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주방가전을 판매하는 주방가전 기획전 을 연다.

/김서현 기자

메디톡스, 국내기업 최초 ‘특신 할랄인증 공장’ 짓는다

두바이 특신공장 건립 MOU 체결
전 세계 무슬림·중동시장 등 공략
한국-UAE간 대표 경제 협력 사례

메디톡스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참한 성과로 두바이에 특신 완제품 공장을 건립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특신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디톡스는 향후 할랄 인증을 통해 전 세계 무슬림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메디톡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두바이 국영 기업 테콤 그룹이 소유한 두바이사이언스파크와 특신 완제품 공장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부터 진행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왼쪽),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 두바이사이언스파크 마르완 압둘아지즈 자나히 대표가 특신 완제품 공장 건립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UAE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메디톡스는 두바이 현지에서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유일 비동물성 액상 특신 제제 ‘MT10109L’

기반의 생산시설을 건립하게 되며, 할랄(HALAL) 인증을 통해 전 세계 무슬림 시장과 중동 및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UAE는 포스트오일 시대를 대비한 중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바이

오 의약품 생산공장 유치에 성공하게 됐으며, 한국-UAE간 대표 경제 협력 사례도 만들게 됐다.

메디톡스는 급성장하는 글로벌 특신 시장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여러 해외 기업들과 현지 생산시설 건립을 오랜 기간 검토해왔으며, 중동 및 유럽 진출에 용이하고 우수한 제반 환경을 갖춘 두바이를 최종 건립지로 정했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 도약을 위해 현지 생산시설 확보는 필수”라며 “할랄 인증을 받은 두바이의 특신 완제품 공장은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역량으로 개발한 메디톡스의 특신 제제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동참하여 모범적 협력 사례를 만들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

며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두바이사이언스파크 마르완 압둘아지즈자나히대표는 “두바이사이언스파크는 기업들의 성공적 비즈니스 영위에 필요한, 훌륭한 에코시스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메디톡스가 우리의 과학 중심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합류한 것을 환영하며, 이 지역에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가 두바이에 특신 완제품 생산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해외 현지에서 특신 생산시설을 보유한 최초의 국내 기업이 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MOU를 계기로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LG생건, 경력보유여성 등 ‘라방 인재’ 육성

‘내추럴 뷰티Live 크리에이터’ 운영
2018년부터 130명 수강생 배출

LG생활건강은 패션뷰티 업계의 대세 유통채널이 된 ‘라이브커머스’ 인재를 육성하고, 경력보유여성 등 우리 사회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ESG 활동인 ‘내추럴 뷰티Live 크리에이터’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2018년부터 경력보유여성, 2030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내추럴 뷰티 크리에이터’(이하 내뷰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130여명의 수강생들이 뷰티 크리에이터로 교육을 받았고, 이중 유튜브 구독자 수 1만 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도 여러 명이다. 내뷰크는 이들의 사회 진출과 취업의 발판을 제공하며 LG생활건강의 대표적인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대세 유통 채널로 주목받으며 올 한 해만 9조 원 대 시장 규모



LG생활건강 내추럴 뷰티라이브 크리에이터 5기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추산되는 라이브커머스 채널에 주목했다. 기존 뷰티 인플루언서 양성 교육 과정에 라이브커머스 교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 라이브(Live) 기능을 강화한 내뷰크 5기 과정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위해 LG생활건강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내뷰크

5기 참가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겸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5기에는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취업준비생, 연극배우, 아나운서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총 244명이 지원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5명(여성 29명, 남성 6명)을 선발했다. 최종 경쟁률은 약 7대1을 나타냈다.

/이세경 기자

메드팩토 ‘백토서팁’, FDA 패스트트랙 지정

신약개발 과정 신속 진행

메드팩토가 골육종 환자 대상 백토서팁 단독요법이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신속 심사제도(패스트 트랙) 개발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중증질환 치료제 등 중요 분야 신약을 환자에게 조기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FDA가 시행하는 신약개발 촉진 절차 중 하나다. 해당되는 의약품은 ▲기존 치료법이 없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약 ▲기존 치료법이 있을 경우, 기존 치료법들과 비교하여 개선점을 입증하는 의약품 등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신약은 개발 각 단

계마다 FDA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FD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약개발 과정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신속히 진행된다. 또 ‘롤링 리뷰(시판허가 신청 시 자료가 구비되는 대로 순차적 제출·검토)’ 혜택이 부여되며, FDA와 ‘우선 심사(시판허가 신청 시 검토 기간을 6개월로 단축)’ 협의를 할 수 있다.

메드팩토는 백토서팁 개발 과정에서 FDA 관계자들과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골육종치료제로서의 허가취득과 발매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삼성서울병원, 美 DHI ‘세계 최고 점수’

〈디지털헬스지표〉

‘디지털 전환 앞장’ 평가

삼성서울병원이 전 세계 병원 가운데 디지털 전환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서울병원은 세계 최대 의료정보 학회인 미국 의료정보경영학회(HIMS)가 진행한 ‘디지털헬스지표(DHI)’ 조사에서 400점 만점에 365점을 획득, 세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헬스지표 조사는 ▲지배구조 및 인력 ▲상호운영성 ▲개인별 맞춤 의료 지원 ▲예측분석 등 4개 영역에서 병원의 디지털 전환 정도를 묻는다.

삼성서울병원은 모든 영역에서 100%에 가까운 디지털 전환 성적을 달성했다. 상호운영성과 예측 분석, 지배구조 및 인력 3개 부문에 각각 99%, 개인별 맞춤 의료 지원에서 98%를 달성했다.

4차 산업 시대를 앞두고 삼성서울병원이 전 세계 어느 병원보다도 발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초격차를 확보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

정 받은 셈이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은 이미 ‘첨단 지능형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이며 변화가 한창이다.

이번 DHI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DOCC(Data-based Operation & Communication Center)가 대표 사례다.

DOCC는 병실부터 수술실, 검사 장비는 물론 의료진까지 병원의 모든 가용 자원을 그대로 ‘디지털 가상병원’에 연동시킨 뒤 병원의 현재 상황을 대입해 적시 적소에 필요한 자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말한다.

가령 채혈 검사의 경우 가상 병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이를 미리 예측하고 해당 시간대 의료진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혼잡도를 줄이도록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병원 현장 곳곳에서 이러한 디지털 가상병원 체계가 20여개 이상 가동되면서 진료와 운영의 효율을 도모,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병원 서비스를 구현해 가고 있다.

/이세경 기자

CMG제약,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 진출

‘아이앤지메딕스’ 인수

CMG제약이 동물영양제 전문기업 ‘아이앤지메딕스’를 인수하고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에 진출한다.

CMG제약은 지난 16일 아이앤지메딕스의 지분을 100%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이앤지메딕스는 반려동물용 영양제를 연구·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반려동물이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정제, 스틱형 파우더, 소프트 츄어블 등 다양한 제형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앤지메딕스는 반려동물용 영양제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인증을 획득하는 등 높은 수준의 위생 시설을 갖췄다. 또

생산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를 적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2021년 업계 최초로 선정돼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우수한 연구개발(R&D) 기술력, 생산능력, 마케팅 노하우로 자체 브랜드 반려동물용 영양제를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 주문자 개발 생산방식(ODM), 제조자 브랜드 개발 생산(OBM)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CMG제약은 보유 중인 기술력과 유통망에 아이앤지메딕스의 반려동물용 영양제 노하우를 접목한다. 아이앤지메딕스가 기존 보유한 오프라인 채널에 CMG제약이 보유한 온라인 채널을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

오늘부터 2023명 무료음료

스타벅스 코리아가 설날을 맞아 18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총 7일간 매일 2023명에게 무료 음료권을 증정하는 ‘사이렌 오더 럭키 래빗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행사 기간 중 회원 계정에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해 사이렌 오더로 매장에서 파트너가 제조하는 음료를 주문하면 영수증 당 럭키 래빗 이벤트 참여 기회 1회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하는 모든 고객에게 새해 응원의 메시지가 노출되고 행사 기간 중 1년 무료 음료권 23명, 1달 무료 음료권 100명, 1주 무료 음료권 200명 2023명을 매일 선정해 총 1만4161명에게 무료 음료권을 증정한다.

/이세경 기자



사업자 모집!!

27년 전통의 대한홍삼(주)에서
건강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하고 획기적인 제품(기능·이윤)군
- 온라인 판매 마케팅 솔루션 지원
 - 웹카탈로그 제공
 -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맞춤형 창업 및 판매노하우 교육
- 홍보 지원 (TV광고 등)



◎ 취급상품

-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의류 / 화장품

◎ 온라인 [웹카탈로그] 제공

- 매장과 소비자 간 견적 딜 시스템
- 영업사원 관리 및 고객 홍보 시스템

◎ 온라인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11만 여 개의 인기 & 특가상품

창업 안내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창업 (매장, 영업장, 센터)

◎ 무점포·무자본 창업

◎ 웹카탈로그·복지몰 창업

창업 비용

업계 최저 창업비
+ 최대 혜택

상담신청



홈페이지



www.koreahongsam.co.kr

30년 역사 햏터그룹

BH 대한홍삼[주] 브레인TV (주)햏터라이프 (주)한삼장홍삼

문의 : 02.2163.0411

대한홍삼(주) 최원석
010.2286.5687



호반건설, SK임업과 환경분야 공동사업 ‘맞손’

호반건설은 SK임업과 환경 분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왼쪽)과 정인보 SK임업 대표이사가 업무협약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반건설



동양철관, 임직원 급여 모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

동양철관은 지난 16일 불우 이웃을 위해 임직원들이 급여 우수리를 모아 마련한 성금을 천안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상호 동양철관 천안공장장(오른쪽 두번째) 및 직원들이 정지표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왼쪽 두번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양철관



카카오게임즈, ‘크루 아이템 기부 캠페인’ 실시

카카오게임즈는 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실천을 위한 ‘크루아이템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임직원들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사내에 설치된 기부함에 활용 가능한 의류, 도서,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들을 기부했다. /카카오게임즈

인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임 △노동이사 박희웅 △비상임이사 한선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 김용국
- ◆고용노동부 ◇개방형 직원 임용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민표
- ◆두산에너지빌리티 ◇상무 승진 △박수영 △이성열 △이성우 △이종진 △최경식 △최남수 △홍충철

부음

- ▲최학경(전 진주공공 기계과 교사)씨 별세, 최영재(자유일보 편집국장)·최원영·최재원씨 부친상, 최진숙(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씨 시부상, 윤태영씨 장인상 = 16일 오후 5시30분, 부산전문장례식장 VIP 3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30분. 051-312-4444
- ▲김병임씨 별세,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은재씨 모친상, 정윤아씨 시모상 = 16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B106호, 발인 19일 오후 1시, 장지 서울시립송화원. 02-857-0444
- ▲조현령씨 별세, 이달근(국회의원)씨 장모상 = 16일, 서울대학교 장례식장 5호(2층), 발인 19일. 010-9081-8870, 010-9961-2426
- ▲김모녀씨 별세, 정준호(SK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씨 모친상 = 16일,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9일 오전. 02-2650-5121
- ▲최상희(전 우리캐피탈 대표)씨 별세, 최용훈(일본 도시사대 교수)·영윤·선윤·재훈(조선일보 차장)씨 부친상, 이형걸(맨즈업의원 원장)·안철현(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씨 장인상, 임향·남인혜(서울 서초구청 근무)씨 시부상 = 17일 오전 5시 5분,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20일 오전 8시. 053-200-6141, 010-3555-5125

‘노란우산 홍보모델’, 소상공인 제품 홍보 돕는다

중기중앙회 100개사 선정 영상제작 등 활용 기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의 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노란우산 홍보모델 활용 영상제작·홍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제품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 홍보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총 100개사를 선정해 홍보영상 제작 뿐만 아니라 TV 광고(IPTV 송출), 유튜브 광고 등도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3월15일까지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노란우산 가입 정보를 입력한 후 중소기업유통지원 포털사이트인 ‘판관대로’에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사업이 좋은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판로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 가입자를 위한 판로지원 등 고객니즈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4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린 가운데 ‘2023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열고 ▲K-POP 꿈나무 ▲홈쇼핑 모델 ▲노란우산 가입자(가족) 등 노란우산 홍보모델 20명을 선발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노란우산 홍보모델.

롯데건설, 설 맞아 서울·부산서 ‘사랑의 연탄’ 나눔

지역별 각 4만장씩 8만장 기부

롯데건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1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서울연탄은행과 부산연탄은행에 각 4만장씩 총 8만장의 연탄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독거노인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등 에너지 취약세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탄 나눔을 진행했다. 기부한 연탄은 서울 노원구, 성북구, 강남구 지역과 부산 동구, 서구, 사하구, 진구 남구 지역에 전달됐다.

롯데건설의 ‘사랑의 연탄나눔’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년째를 맞았다. 현재까지 기부한 연탄의 수량은 서울(32만장)과 부산(30만 2000장)을 합쳐 총 62만 2000장에 달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한 연탄이 따뜻한 명절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윤수준 롯데건설 영남지사장(오른쪽)과 강정철 부산연탄은행 대표가 ‘사랑의 연탄나눔’ 전달식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건설

LGU+, 설 앞두고 독거 어르신께 명절선물 전달

용산복지재단에 젓갈세트 기부

LG유플러스가 설 명절을 맞아 독거 어르신들에게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LG유플러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용산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을 위해 용산복지재단에 젓갈 선물 세트 127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선물 세트는 LG유플러스가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을 활용, 국내 농어촌 지역의 특산품으로 준비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 기업이 출연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이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용산복지재단과 함께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의견을 사전 수렴해 오랜 기간 저장이 가능한 젓갈을 선물 품목으로 결정했

다. 선물세트는 개당 5만원 상당이며 낙지젓갈, 명란젓갈, 오징어젓갈 등 총 3가지 젓갈로 구성했다. LG유플러스 이흥렬 ESG추진실장은 “명절 선물 세트 전달을 통해 지역 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진정성 있는 나눔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BGF복지재단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 지원

인천 학생 1000기 식사 지원

BGF복지재단이 방학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식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학 중 결식우려아동 식사 지원은 BGF복지재단이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취약계층 아동들은 학기 중엔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지만 방학 중에는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 BGF복지재단은 이달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중구, 미추홀구에 위치한 교육복지 사업학교 10개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 지역국밥, 오프라이스, 장조림비빔밥 등 8종으로 구성된 총 1000기의 식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가정과 한부모·조손가정을 포함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중 결식이 우려되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 학생 90여 명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소공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하나금융그룹과 상생 프로젝트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나금융그룹과 ‘하나 파워 온 스토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17일 소공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하나금융그룹과 마련한 상생 프로젝트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80곳에 최대 150만원의 디지털 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AI) CC

TV 렌탈 또는 구매를 통한 보안 및 데이터 관리 ▲키오스크(무인주문 결제 기기) 구매 ▲공기 방향제·손세정기·손소독기·변기세정기 등 위생관리서비스 ▲해충 방제·전문 살균 케어 서비스 및 UV 공기 살균 청정기 구매 패키지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스마트기기 필요성과 활용방안 등이 담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연합회에 제출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롯데렌터카 제주 오토하우스.

10만가구 미분양시대의 추억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주택업계의 골칫거리는 미분양이었다. 당시 10만가구에 이르던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최고 16만6000여가구에 달하기도 했다. 당시 준공후 미분양이 5만여가구로 현재의 7배에 이를 정도였다.

미분양 10만가구시대에는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왕’이었다. 그야말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전세 역전의 참맛을 즐길 수 있었다. 건설사들은 차별화된 품질 개발에 여념이 없었고, 각종 원가절감, 기술 개발 등 혁신 바람이 시장을 변화시켰다. 수요에 맞게 중 소형 공급이 늘어나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넓어졌다. 중도금 무이자융자는 물론 각종 분양가 할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민간주택 공급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매년 40만~50만가구의 주택 공급은 여전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27가구에 달한다. 이 중 전월에 발생한 물량이 1만여 가구에 이른다. 부동산업

계는 미분양 주택 규모가 조만간 6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환경에서 새해 첫 분양시장은 한산하다. 수도권에서는 모델하우스 오픈 일정이 거의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이달 첫째 주에는 전국 3곳·2164가구, 둘째 주 전국 6곳·2218가구, 설연휴를 앞둔 이번 주에는 전국 4곳·2020가구의 청약 접수가 이뤄질 뿐이다. 매달 몇 만 가구의 분양이 이뤄지던 것과는 판이하다.

최근 정부는 ‘올 업무 추진계획’을 내놓고 서울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뿐만 아니라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까지 완화해 시장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등 규제 대부분이 폐지됐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내용은 미분양주택 정부 매입이다. 윤석열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으로 이미 국토부 검토가 진행중이다. 이걸 너무 한참 나간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기금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다면 전체 기금 47조원 중 27조원 이상을 써야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 ‘악성 재고’를 혈세로 감당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셈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임

대주택 매입 재원으로 사용하는 기금이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 이 기금이 쓰일 전망이다. 여기서 이게 맞느냐는 것이다. 사업자가 아니라 수요자들에게 쓰여져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물론 미분양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는 하나 중장기적인 전략일 수는 없다.

이에 앞서 건설사들의 물량 조절, 과도한 분양가의 인하, 품질 혁신 등 자구노력이 먼저다. 이를 통해 수요를 유인, 시장을 회복시키지 않고 그저 파주기식 기금 소진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소화할 경우 수요자들은 여전히 고분양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명목으로 규제지역은 물론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중도금 대출 제한, 무순위 청약자격 등도 대거 폐지한 결과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비판이 넘친다.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하더라도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는 사실상 임대수요가 있을 지도 따져봐야한다. 게다가 매입한 주택이 임대수요자에게도 적절한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 개입한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 좀더 신중한 논쟁이 요구된다.

/ peace@metroseoul.co.kr

그들만의 대한민국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요. 백정은 살수 있소. 노비는 살수 있소.”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에서 노비의 아들인 유진초이는 의병이 되기 위해 몰래 총포술을 배우는 사대부 집안의 애기씨고 애신에게 묻는다. 고애신은 이후 유진초이를 만나 “나는 옳은 쪽으로 견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내가 품었던 대의는 모순이었다”고 말한다. 조선을 구하고 있다는 그 어떤 의로움에 취해 정작 그 조선에 살아야 할 이들, 독립의 본래 취지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인상했다. 5%대가 넘는 물가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

해 7월 6.3%까지 치솟은 물가는 12월까지 5%대를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 이유는 물가상승률이 5%대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물가가 중단기적으로 정책목표치(2%대)에 근접해 간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해를 못할 바도 아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2020년에 비해 상승했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 최저임금은 하락했다고 했다. 모든 이들이 느끼던 바가 지표로 나온 셈이다.

그럼에도 아쉬운 이유는 이 시기에 맞는 맞춤 정책이 적시 적소에 나오지 않아서다. 올해 금융당국은 설 명절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맞추기 위해 14조3000억원의 특별자금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설 명절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36조

8000억원을 지원하던 것과는 61% 감소한 수준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신용점수 낮추는 것이 일이 돼 버렸다. 은행에선 대출 문을 꽁 닫고 있으니, 신용등급을 더 낮게 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직접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 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렵게 지원하는 ‘악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시정연설에서 한 말이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의로움에 취해 있는 건 아닌지. 악자 복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내놓았으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묻고싶다. 물가가 낮아진 대한민국에 청년은, 아들은, 노인은 살고있습니까.

/yu115@

오늘의 운세 1월 18일 (음 12월 2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윤이 상승하는 날이니 미뤄둔 일을 처리. 48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60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72년생 사랑타령은 시간낭비이다. 84년생 신세 진 사람이 빚을 갚으려 온다.



37년생 지인 관리를 잘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49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간다. 61년생 가정의 화목이 최고의 행복이다. 73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85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38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50년생 일의 진행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62년생 뒤돌아서서 부러워한다. 74년생 가는 사람은 가도록 붙잡지 마라. 86년생 하늘도 파랗고 공기도 맑으니 하루 종일 운수대통.



39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말라. 51년생 장기투자는 심사숙고해서 결정. 63년생 망설이는 사이 기회는 날아간다. 75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다시 계획을 잘 세워라. 87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인듯하다.



40년생 변화 속에 기회가 온다. 52년생 자꾸 필요 이상의 의미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64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도록. 76년생 거짓의 근거 없는 칭찬에 마음 이 붕 뜬다. 88년생 좋은 길상한 복은 자연 빛을 따라 모인다.



41년생 늦지 않았으니 계속 노력하면 하늘이 도와준다. 53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쳐야 한다. 65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서로 타협하는 것. 77년생 윤이 활짝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해결. 89년생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참아라.



42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54년생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66년생 결혼은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78년생 약속이 자꾸 다른 사람은 멀리. 90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실수가 적다.



43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나 마음이 복잡해진다. 55년생 오후 외부활동을 자제하라. 67년생 지방에 계신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펴봐라. 79년생 내가 행복하면 것이 인류행복의 첫걸음이다. 91년생 새로운 거래가 생기니 좋은 일.



44년생 상대방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56년생 나이 드는 것이 서러워진다. 68년생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 80년생 끝까지 참는 것이 불운을 이긴다. 92년생 여러 모임에서 감정을 절제해야 계속 이득.



45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즐거운 하루. 57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라. 69년생 약간의 먹구름이 끼었으니 주의. 81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93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를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46년생 투기와 투자를 잘 구분해야 슬프지 않게 된다. 58년생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많이 피곤하다. 70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타격이 크다. 82년생 개업은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 94년생 부분적 결함을 탓하지 마시길.



47년생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59년생 심신이 고달프니 휴식을. 71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시작. 83년생 동료와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 95년생 마음의 질을 높이는 일은 거창하지 않는다.



김상회의四季 토끼와 인간관계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토끼는 돼지 양띠와 합을 이룬다. 기질이 통하니 해묘미상합亥卯未三合이라 명명한다. 쥐 말 닭띠와는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 내 힘을 발휘하는데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오행의 합 충 형과 화를 따질 때는 연지 일지를 살피는데 일지를 우선시한다. 토끼 쥐띠와는 형살 말띠는 파살이라 이중성 가시방석, 닭띠와는 상충살이니 매사 부딪히는 게 많다.

단순히 묘卯와 유酉가 충이 되어 일방적으로 토끼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찌르고 다쳐 작용반작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뜻이다. 옛 서적의 비유를 빌리자면 토라치리兎羅羅羅라 토끼를 잡으려고 밧을 놓았는데 꿩이 잡힌다는 것으로 소인들 싸움으로 인해 군자가 다친다는 의미다. 즉 상충에는 직접 상관이 없음에도 피해를 보는 제삼자가 생길 수 있다. 상충살이 드는 관계에서는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괜히 불편하고 아무렇지 않은 행동도 고깝게 보이곤 한다. 원숭이띠申와는 귀문과 원진살이 있어 신申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이니 어려운 관계에 놓인다. 같이 있으면 다툼이 많고 떨어져 있으면 아쉬운 흔히 말하는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다.

육합六合에 묘술합卯戌合이 있다. 길한 운세로 흐르는 지지합地支合이 아닌 경우는 처음엔 좋으나 끝이 좋지 않다. 합후질기合後疾忌라는 것으로 처음은 화합한듯하나 부정적인 기운으로 변화한다. 이를 표현해본다면 묘卯과의 고슴도치를 개戌가 잡으려다 뽕쪽한 가시에 찔리니 타이든 자의든 개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묘술합의 이성 만남은 첫 눈에 불이 붙어도 끝날 때는 원수가 되어 틀어지는 격이니 결혼, 동업을 할 때도 상호간에 반합이 들었는지 살펴볼 만 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1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1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하는 힘**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량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4			7	9	
3				8		5		
7	6			9				
								4
	7	2				6	5	
4								
				6			3	8
		6		5				1
	1	3			8			

		9	4	6	3			
		2					6	
		8			5	4		
5	7						8	2
		4	1			5		
	4					3		
			2	3	8	6		

정답

9	9	6		8	7	2	8	1	2
1	8	7	2	9	8	9	8	6	
8	2	7	1	9	6	7	2	9	
2	1	8	9	2	9	6	8	7	
6	9	9	7	8	8	2	2	1	
7	2	8	6	2	1	8	9	9	
8	8	1	9	6	2	7	9	2	
2	7	9	2	8	9	1	6	8	
9	6	2	8	1	7	9	2	8	

1	6	2	7	2	9	8	9	8	
7	9	9	8	8	2	2	6	1	
8	2	8	6	1	9	9	7	2	
9	8	9	2	8	1	7	2	6	
2	8	6	9	7	8	1	2	9	
2	1	7	9	2	6	8	9	8	
6	9	2	1	9	8	2	8	7	
9	2	1	8	9	7	6	8	2	
8	7	8	2	6	2	9	1	9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유아교육, 임용고시 같이 준비했다… 유보통합, 불공평”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설치계획
현장 납득 못시켜 ‘졸속처리’ 비판
일부서 반대 요구 청원까지 진행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논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장은 졸속 처리를 지적하며 ‘유보통합 추진 반대’에 나섰다. 유보통합의 본질적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함에도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본격화된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관리체계 통합’과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교육현장을 납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유보통합이라는 대규모 계획임에도 계획과 소통이 충분치 않아 졸속 처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는 ‘유보통합 추진 반대’를 요구하며 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조 유치원위원회 등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보통합 강행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 현장 교사 의견 반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30년째 공화전 중인 유보통합의 가장 큰 쟁점은 교사 간 격차 해소에 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증은 취득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 시 원활한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격 수준 및 양성제도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들 간 기본 자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 입장에서는

차별의식 같은 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 자격에 있어서는 보육교사들의 자격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시설 기준에 있어서는 서로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통합해 놓을 경우,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예측이다.

유치원 교사는 최소 유아교육과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위 소지자이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에 합격

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유치원에 임용되는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학위소지자 외에도 학점은행, 기타 교육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비교적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다.

실제로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에 앞서 ‘프라이드’에 대해 언급한다. 서울 소재의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씨(27)는 “중·고등학교 임용고시랑 똑같이 준비했는데 1~2년 준비한 몇몇 보육교사랑 동등해진다는 건 불공평하고 말이 안 된다”며 “유치원 교사들은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유보통합은 당연히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긴 채 다른 부분에 더욱 집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유치원 교사 김모씨(29)는 “보육교사 취득과정은 사라지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어린이집, 유치원의 구분이 나뉘질 게 분명해 유치원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별다른 기대감이 없다는 의미였다.

완고한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합의점이 필요해 보이지만 교육 당국은 걸출기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해 교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명확한 안내가 없었으며, 교원양성기관의 전문대학원 도입에서도 유아교육을 포함하지 않아 지적됐다.

예산 역시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보통합’ 필요 재정이 15조 이상 소요된다고 했지만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존재하지 않아 현장의 불신을 사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기간을 단 6일만 진행했다. 행정절차법 43조에 의하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기간 안에는 주 말이 포함되며, 전국 대다수 유치원들이 겨울방학이거나 졸업식을 한 상황이기에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기 공문을 시행한 것은 사실상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졸속 처리 의지 표명”이라며 “정답을 정해놓은 채 교사들을 둘러리로 세우는 추진단 운영 방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교육부,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

작년 104개교에 4020억 재정 지원
올 특별회계 신설 6220억으로 증액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2022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각 전문대학의 2022년 혁신지원사업 운영 성과(교육 혁신·산학협력 혁신·기타 혁신)를 공유·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각 전문대학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업비를 받은 전문대 104개교에 4020억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했다.

올해는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를 고려해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하면서 예산이 622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사업비를 받은 전문대 104개교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44개교를 소개해 타 학교가 발전 계획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첫날인 17일에는 주제 발표와 함께 18개 대학이 각각 6개교씩 ▲교육혁신 ▲산학협력 ▲글로벌, 평생직업교육강화,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에 대해 대학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다음날인 18일에는 교육혁신 16개교, 산학협력 혁신 1개교, 사회적 가치 분야 혁신 9개교 등 총 26개교가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대학 실무자인 권역별 사업단장 간담회를 통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실무자를 비롯해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상운 교육부 차관은 “그간 전문대학은 가장 대표적인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산업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전문기술 인재 양성 및 학생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향후에도 전문대학이 교육혁신 성과를 높여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삼육대 ‘신입생 MVP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삼육대

삼육대, 예비신입생 MVP캠프 개최

신입생 500명 1박2일 교내 합숙

삼육대학교는 16일부터 19일까지 교내 일원에서 ‘신입생 MVP 캠프’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MVP 캠프는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 프로그램이다.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Passion)을 지닌 MVP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시작돼 14년째를 맞았다. 올해 MVP 캠프는 신입생 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2회차(1차 16~17일, 2차 18~19일)로 나눠 1박 2일간 교내 합숙으로 운영했다.

캠프 총주제는 ‘삼육의 마법사’다. 프랭크 바움의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허리케인을 타고 ‘삼육의 나라’로 오게 된 신입생들은 동기

혹은 선배들과 함께 1박 2일간 교내에서 다양한 모험을 하며 두뇌, 심장, 용기를 얻게 된다.

캠프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레크리에이션 ‘토토야 산책가자’ ▲공동체 활동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모험’ ▲소그룹 활동 ‘SSAP인싸자’ 등이 진행된다. ▲동아리 공연 무대 ‘양철나무꾼의 일탈’ ▲선배와의 대화 ‘적적학사 허수아비’ 시간도 마련된다.

김일목 총장은 “MVP 캠프는 신입생 여러분을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Passion)을 가진 MVP 인재로 키워주고 세워주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함께 꿈을 만들어 나가는 4년이 되길 기대한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세종대, 예비·초기 창업자 역량강화 나서

20일까지 ‘동계 창업캠프’ 참가 접수

세종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22 동계 창업캠프’를 31일부터 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예비, 초기 창업자들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양A1센터 3층 콜라보랩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전담 멘토 1명이 3~4팀의 맡아 집중적인 창업 멘토링을 진행한다.

1일 차와 2일 차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전문가 강의 및 멘토링을 통해 다룬다. 1일 차에는 아이스브레이킹 및 팀 빌딩을 시작으로, ‘창업 아이템 가치의 중요성’,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등의 강

의가 진행된다. 2일 차에는 ‘발표 자료 제작 방법’ 및 ‘효과적인 스피칭 방법’ 강의를 열리며, 이후 팀별 아이디어 고도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 멘토링이 이어진다. 3일 차에는 팀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시상식을 진행한다.

3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발표심사는 팀당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으로 평가된다.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6팀을 선정해 총 48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신하은 기자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부모 배경 따른 학력 격차 심화…학교 교육 강화해야”
▲설 명절 교통사고·주택화재 빈번…연휴 전날 최다 /사진 뉴시스

▲‘1심 징역 35년’ 오스팀 재무팀장·검찰 쌍방 항소
▲서울시, ‘춥불연대’ 경찰 수사의뢰…국보법 위반 혐의



▲이태원 유족 “국정조사 한계 보완하는 독립적 진상조사 이뤄져야” /사진 뉴시스
▲국교위, 실무기구 구성 착수…‘중장기 교육계획’ 자문



[라이프]
바로·임박·새벽
유통가
설선물 스퍼트
L1



Life

[바이오]
메디톡스
두바이에
할랄공장 짓는다
L2



서울시의회, 객관적 예산 편성·사회적 책무 강화 등 주문

서울시의회 요구사항 155건 접수
수요 등 과학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행정소송 증가에 대책 마련 요구
市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객관적인 예산 편성, 행정소송 증가 원인 분석,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주문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155건을 접수해 131건에 대한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나머지 21건은 추진 중이고, 3건은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수요, 그간의 실적,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작년 9월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용 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특정 사업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이 사업 예산 편성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사업별 효과성,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유무, 유사중복 여

부, 집행실적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예산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행정수요 변화에 발맞춰 시의성이 부족한 사업,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시민 체감형 재

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권익·민원 행정소송 증가는 서울시정에 대한 불만의 방증이라며 시에 전반적인 행정 기조를 검토하고 행정소송의 원인을 분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행정소송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9년 192건에서 2020년 271건, 2021년 291건으로 2년 새 51.6% 폭증했다.

시는 “행정소송의 경우 범규의 시행·고시 처분 등에 따라 유형별 사건이 해당 연도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제기된 행정소송 291건 가운데 59건이 코로나19 관련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2019년 192건에서 작년 232건으로 2년 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시부터 전문적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해 법원 판결 추세를 법규·제도에 적극 반영,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서울시 산하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평가 강화에 고졸생 취업비율 상승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 제시됐으나 반영이 안 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작년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감점 폭을 기존 최저 -1.5~최대 3점에서 최저 -2~최대 3.5점으로 확대했다. 고졸생 취업비율은 지표 배점을 높여(0.25→0.5점) 관리 중이며, 기관별로 고졸생 취업자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전장연에 비공개 합동면담 제안

전장연 “타 단체 제외, 단독 면담 요구”
서울시 “다양한 단체 목소리 들어야”

서울시는 지하철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면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19일 오후 장애인 단체에 비공개 합동 면담을 요청했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국비 1조3000억원)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

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전장연은 타 장애인 단체가 없는 단독 면담을 요구했고, 시는 다른 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면담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탈시설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으며,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하는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

리 예산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장연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재부 등의 소관이나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에 적극 나서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한 교통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지하철역 337개 중 95%에 해당하는 319개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으며, 2024년까지 337개 전역사에 엘리베이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동권 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와 함께 키워요”… 육아지원 본격화

오세훈표 ‘엄마야빠 행복 프로젝트’
0세 전담반·돌봄비 등 2002억 투입

서울시는 올해 2002억원을 들여 ‘엄마야빠 행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엄마야빠 행복 프로젝트는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의 종합 계획으로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4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는 아이와 동반하는 외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서울형 키즈카페 100곳, 유아용변기와 기저귀교환대를 갖춘 ‘가족화장실’ 49개소를 서울시내 곳곳에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육아가 처음인 초보엄마야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선보인다. 3월에는 100개의 ‘0세 전담반’을 어린이집에 신설하고 이른 저녁(오후 6시)에 하원하는 아이들이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100곳에 조리인력을 지원한다.

8월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원을 제공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첫발을 댈다.

시는 기존 사업을 포함해 엄마야빠 행복 프로젝트에 2026년까지 14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용인시, 상습정체 도로 개선에 1964억 투입

처인구 중심으로 도로망 연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동서간 균형있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도로·교통 분야에 전년 대비 245억원이 증가한 1964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에 ▲국도 17호선 보개원삼로 1.9km 구간 확포장공사 80억원 ▲마성교차로에서 포곡IC까지 이어지는 중1-45호선 2.24km 구간 왕복2차로를 4차로로 확장 50억원 ▲국도 17호선

평창사거리~양지IC 구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국지도 82호선 화성시 동탄~남사면 천리 6.8km 구간 개설, 국지도 84호선 동탄~이동읍 천리 6.4km 구간 개설 등 각각 467억원(12곳)과 222억원(11곳) 등 도로 개설·확장사업(75곳)에 1189억 원을 투입한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 개선이 시급한 처인구를 중심으로 지역 간 도로망을 연결하는 데 힘을 쏟아 시민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균형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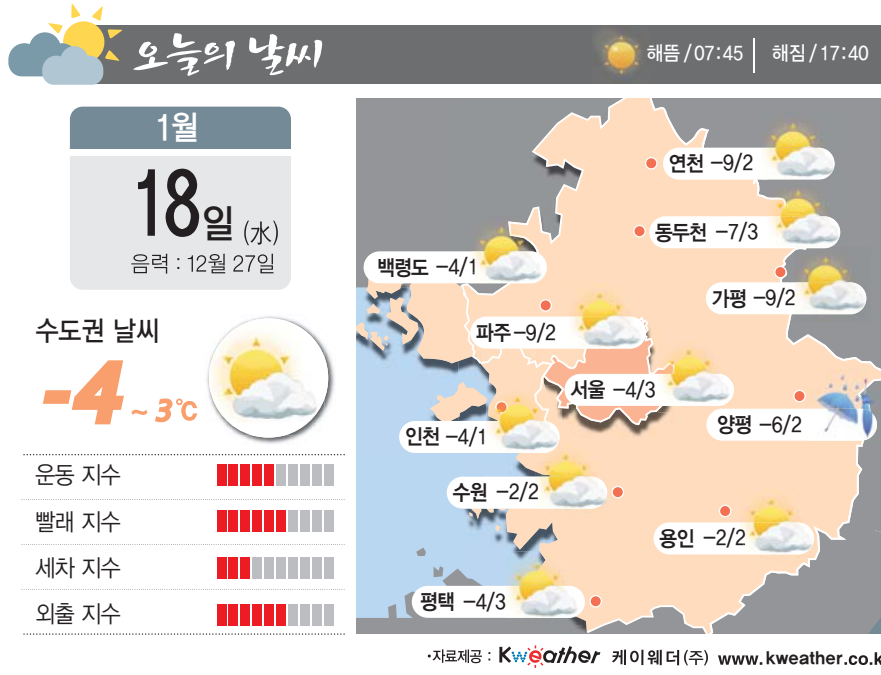
/경기=임창교 기자 lckda@

성남시 100억 규모 취업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올해 미취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에 100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청년 취업 All-Pass’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어학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가공인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거주 만19세이상 34세이하의 모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회 100만원 이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접수를 진행해 실비를 지원한다.

/경기=임창교 기자



버스타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첼시로 간 무드리크 전 구단, 300억원 전쟁구호 기부
▲야스민 없어도 6승2패…현대건설, V-리그 최다승 정조준 /사진 뉴시스

▲SK와이번스 댄 양헬 산체스, 샌디에이고 마이너 계약
▲프로축구 수원, 전북서 댄 ‘패스마스터’ 김보경 영입



▲빙속 박지우, 동계 유니버시아드 여자 3000m 은메달 /사진 뉴시스
▲여자프로배구 시페퍼스, 훈련장·숙소 광주 이전 추진

SK telecom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3. 2. 28까지
마침내, 로밍할 결심
첫 로밍
50% 할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심되는 T로밍

- ! baro 요금제 이용 시 baro 통화, 문자 무료
- ! 187개국 어디에서나 내 폰 내 번호 그대로
- ! 24시간 계속 운영되는 안심 로밍 고객센터
- ! T로밍이 제공하는 다양한 추가 혜택까지!

추가 혜택 - 신세계면세점 최대 120만 원 할인
캐롯 여행자보험 30% 할인 / 하나은행 환율 우대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자는 기본 제공, T전화 앱을 통해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 로밍 요금 미발생 (한국 및 방문국 외 다른 국가로 발신 시 제외)
여행자보험 쿠폰 최대 한도 10,000원 제공 | 기간: 2022. 6. 1. ~ 2023. 2. 28. 까지 | 자세한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T roaming